

WTO DDA협상 지방설명회

2002. 6.

산업자원부 · 산업연구원
KOTRA · 무역협회 · 대한상의

WTO DDA협상
지방설명회 자료

DDA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2002. 6.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기획단)

< 목 차 >

1. WTO 도하각료회의 합의 결과 및 DDA 협상	
가. 도하각료회의 결과	1
나. 협상동향 및 평가	2
다. DDA 협상의 7개 주요분야별 이슈와 대응과제	3
< 붙임 1 : 다자간 무역협상 진행경과 >	
2. DDA협상 대응체제	
가. 관계부처 협조체제 구축	8
나. 산자부 대응 현황	9
3. 산자부 소관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1) 비농산물 시장접근	10
2) 규범(반덤핑 · 보조금 · 지역협정)	12
< 붙임 2 : 반덤핑 및 보조금분야 논의사항 >	
3) 서비스	17
4) 환경	19
5) 지적재산권	20
6) 싱가포르이슈(투자 · 정부조달 · 무역원활화 · 경쟁정책)	21
7) 전자상거래	24
8) 섬유	25

○ 첨 부 : 도하각료선언문

1. WTO 도하각료회의의 합의 결과 및 DDA 협상

가. 도하각료회의의 결과('01.11.9~14, 카타르 도하)

○ “DDA(도하개발아젠다)”에 관한 각료선언문 채택

- 협상 의제(폭넓고 균형된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관세, 비관세), 반덤핑 · 보조금 협정 개정,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개정, 싱가포르이슈(투자, 경쟁,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협정이행문제 등

* 개도국의 이해와 필요를 고려하고, 개도국 능력배양 추진

- 다자통상협상을 지칭하는 “뉴라운드”라는 명칭에 대한 개도국의 반발을 감안, "Doha Development Agenda(DDA)"라는 명칭을 사용

- 협상방식 : 전 협상의제를 포괄하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

- 협상감독을 위한 무역협상위원회(TNC :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개최('02.1.28~2.1)

- 2005.1.1 이전 DDA협상 종료(3년간 협상시한을 설정)

- * '03.9월 예정인 멕시코 각료회의에서 협상경과 중간 점검

○ DDA협상 출범의 의의

- DDA협상은 전세계적으로 교역장벽을 낮추고 국제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세계경제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임

- WTO 체제 수립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폭넓은 협상 의제에 비해 UR협상에 비해 훨씬 단기간의 협상기간('01.1~'03.12)을 설정, 신속한 협상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나. 협상동향 및 평가

① 4월까지 협상 기초작업을 대부분 완료

○ 2.1 제1차 TNC 회의에서 7개 분야 협상기구를 설치하고 협상 진행 방식에 대한 지침 채택

* 7개 분야 : ①농업, ②서비스, ③비농산물 시장접근, ④규범, ⑤환경, ⑥지적재산권, ⑦DSU

* 협상 지침 : 협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협상 합의안 채택시 모든 회원국의 참여를 보장

○ 2월 중순 각 협상 그룹 의장 선임 후, 3~4월중 각 그룹별로 협상회의를 개최하여 금년중 작업계획을 확정

- 협상그룹별 3~4회의 공식 회의 및 비공식 회의 개최
- 단, 비농산물 시장접근은 개도국의 이견으로 작업계획 미확정

② 협상그룹별로 실질 사안에 대한 논의 진행중

○ 환경, 지적재산권, DSU, 싱가포르 이슈는 구체적인 논의 개시

○ 규범, 비농산물 시장접근은 5월부터 논의 본격화

※ 농업과 서비스는 2000년초부터 협상 진행중(Built-in Agenda)

③ 현재까지의 협상진행 평가

○ 농업과 서비스 분야는 상대적으로 협상이 많이 진척됨

○ 반덤핑 등 규범분야는 수출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거나, 미국이 의회의 다자협상권한 부여와 관련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각

○ 싱가포르 이슈는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협상개시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협상의제 설정부터 신중하게 진행

다. DDA 협상의 7개 주요분야별 이슈와 대응과제

① 무역규범

- 규범분야에 대한 협상은 반덤핑과 보조금 협정규정을 명확히 하여 반덤핑 관세나 보조금 상계관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반덤핑 분야는 무분별한 조사개시 방지, 덤핑마진 결정, 피해의 결정, 재심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이,
 - 보조금 분야는 특정성의 개념, 상계가능보조금의 요건, 허용보조금의 범위, 개도국에 대한 특례, 상계관세절차 등이 주요 쟁점임

협상과제

- 반덤핑 및 보조금(특정성 등) 개념을 명확히 하고 발동요건과 절차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에 가해지고 있는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

② 공산품 시장접근

-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 개시
 - 특히 각료선언문에 첨부관세(tariff peaks), 고관세(high tariffs) 및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의 완화문제 명시
- 협상의 초기단계에서 관세인하의 대상 및 정도, 인하방법 등 협상의 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후,
 - 협상중반 이후 산업별·품목별 구체적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전망

협상과제

- 관세인하 협상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산업별·품목별 상대국의 관세현황 및 비관세장벽을 면밀히 점검하고
 - 우리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협상안을 마련하여 협상 전략 수립 필요

③ 서비스

- 서비스 협상은 건설·교육·관광 등 10여개 서비스 분야(우리부 소관 유통, 에너지서비스)에 대한 추가적 시장개방 논의에 관한 것으로
- 서비스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은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규제의 투명성 보장을 통하여 달성
- 서비스협상은 2002.6월까지 상대국에 대한 양허요청안을 마련하고, 2003.3월까지 최초양허안을 제출하여 진행될 예정

협상과제

- 우리부 소관 분야 중 경쟁력 있는 유통서비스 분야는 향후 협상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계기로 삼고
- 에너지서비스 분야는 국내산업의 성숙도를 감안한 자율적 개방계획(전력산업 구조개편안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장개방 추진 필요

④ 농업

- 농업의 환경보존 측면과 식량안보 등과 같은 비교역적 관심(Non-Trade Concerns)을 고려하되,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협상
- '03.3월까지 협상방식 수립후, 5차 각료회의 이전까지 양허안 제출

협상과제

- 농산물 시장개방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개방의 범위와 속도조절에 노력하면서 국내적으로는 농업구조조정, 민관합동 장·단기 대응전략 수립

⑤ 환경

- 환경관련 상품의 교역장벽 철폐, MEA(다자간환경협상)과 WTO협정의 관계정립 등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상 개시
-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방 확대방안 논의

협상과제

-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방 등 환경분야 협상 과정에서 국내산업과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협상안 마련
- 「환경보호」 측면을 강조하여 국내 「환경산업」 보호육성 측면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 수행

⑥ 분쟁해결양해(DSU)

- '03.5월 이전 합의를 목표로 패널구성, 제3자 참여, 투명성 제고 등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일반규정 개정을 위한 협상개시

협상과제

-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다자간분쟁해결 제도와 절차 확립

⑦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표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하고, 지리적표시 품목의 확대 검토
- 그외 TRIPs 협정과 CBD(생물다양성협약)과의 관계, TRIPs 협정이 신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문제 등에 대한 연구 지속

협상과제

- 지적재산권의 한정된 지리적표시 분야를 다루고 있어 우리입장에서는 큰 현안사항은 아님
- 다만 TRIPs협정이 신기술발전을 수용하는 문제 등 새로이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미래의 특허제도 운용방향을 제시한다는 견지에서 국제규범 정립과정에 적극 참여

< 붙임 1 : 다자간 무역협상 진행경과 >

가) GATT체제하의 다자간 무역협상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발족 : 1947.10.30

○ GATT는 당초 국제무역기구(ITO) 주관 하에 관세양허 및 무역자유화 협상의 결과를 구현하기 위한 협정으로 출발

○ 국제무역기구 설립 실패 이후, 1995년 WTO체제 출범 이전까지 GATT는 다자간 무역협상의 중심축으로 역할 수행

□ 1차부터 5차까지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관세 인하에 집중하였고, 케네디 라운드부터 비관세장벽 완화문제 대두

□ GATT하의 다자간 무역협상과 그 결과

구 분	장 소 / 명 칭	협 상 분 야 및 성 과	참 여 국
1차	스위스 제네바('47)	관세(45,000품목 양허)	23
2차	프랑스 안시('49)	관세(5,000품목 양허)	13
3차	영국 토르케이('51)	관세(8,700품목 양허)	38
4차	스위스 제네바('56)	관세(25억불 상당 관세인하)	26
5차	딜론 라운드 ('60 ~ '61)	관세(4,400품목 양허)	26
6차	케네디 라운드 ('64 ~ '67)	관세(선진국 제조업분야 관세율 35% 인하) 및 반덤핑	62
7차	동경 라운드 ('73 ~ '79)	관세(선진국 관세율 33% 인하), 비관세 및 분야별협정(쇠고기, 낙농, 항공기, 정부조달 등)	102

※ 우리나라는 1967.4.14. 71번째 회원국으로 GATT 가입

나)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체제의 발족

□ 우루과이 라운드 배경 및 경위

- 과거 공산품 중심의 교역에서 보조금,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 새로운 무역관련 분야에 대한 규율 필요성 대두
- 1986.9월 우르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뉴라운드의 출범 선언
- 1994.4월 마라케쉬에서 협정문을 조인하고 1995.1월 협정발효 및 WTO 출범
- * 협상의제 : 공산품 시장접근, 농산물, 서비스, 섬유 및 의류, 무역관련 규범제정(반덤핑, 수입허가절차, 기술장벽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원산지규정, 선적전 검사제도, 무역관련 투자협정),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정부조달

□ 우루과이 라운드의 주요 성과

- 시장접근 개선 및 새로운 무역규범 제정
 - 관세인하(평균관세율 33%인하), 비관세 장벽 완화, 섬유 및 농산물 시장접근 개선
 -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분쟁해결 등 새로운 규범 제정
 -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규율
- 국제기구로서의 WTO 출범(1995.1월) : '02.6월 현재 144개 회원국

구 분	GATT	WTO
성 격	협 정	국제기구
포괄 범위	상품 위주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포괄적
분쟁 해결	국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 취약	이행 강제력 있는 분쟁해결 방식 도입

2. DDA협상 대응체제

가. 관계부처 협조체제 구축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주재, 장관급)

- DDA협상 등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함에 있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
- 동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차관급) 개최

※ 제5차 대외경제장관회의('02.2.9) 합의

- 협상안은 각부처별 대책반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주무부처 지정
 - 대외협상은 원칙적으로 통상교섭본부가 담당하되 사안에 따라 관계 부처도 담당

○DDA 민관합동포럼('02.4.30일 출범)

- 목표 : WTO DDA 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협상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여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대외경제장관회의 지원)
- 구성 : 부총리, 대한상의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대표(재계, 학계, 언론계, 노동계 등)로 구성
- 동 포럼 산하에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 논의를 위한 소관 부처 주관으로 「분야별 포럼」 구성
- 공산품(산자부), 농·수산(농림부), 환경(환경부), 서비스(외무부)

나. 산자부 대응 현황

○ DDA협상 전담조직 강화

- DDA협상을 위한 「국제협력기획단」 출범('01.12월)
- 제네바 대표부 상무관('02.4월)

○ 대한상의, 무역협회, KOTRA등 경제단체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민간의 협상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상설 협조체제 구축

- 민관합동 「DDA 분야별 대책반」 회의 개최
 - 공산품 시장접근, 유통 및 에너지, 무역규범에 대한 대책반회의를 매월 운용중(DDA협상 결과를 보아가며 추가 개최 추진)
- 협상안 준비를 위한 용역 추진
 - 공산품 분야
: 공산품 시장접근 협상에 따른 주요 품목별 영향분석 및 협상방안
 -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조치 분야
: 각국의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조치에 대한 WTO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입장과 협상전략 수립 등

○ 업계의 협상참여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및 의견수렴활동 강화

- 제네바 현지의 협상진행 상황을 수시로 전달하여 업계의 관심도 제고 및 협상경과에 대한 민간부문의 Feed-back 기능 강화(협상안에 반영)

○ DDA 주요분야 국제세미나 추진

- 공산품 시장접근 및 규범분야에 대한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학계를 포함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의제별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긴밀히 연계하여 우리나라가 협상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하반기 개최 예정)

3. 산자부 소관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

가.	비농산물 시장접근
----	-----------

① 협상 동향

- 도하각료선언에 의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및 철폐를 추진할 것에 합의
 - 고관세(high tariff), 첨두관세(tariff peak) 및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의 감축 또는 철폐 포함
- 제1차 비농산물 시장접근 그룹 회의(4.10~11)에서 향후 작업계획(*)에 대한 개도국의 반대로 합의 도출 실패(합의도출 노력 중)
 - * 금년중 4회, 2003년 4월까지 3회의 협상회의를 개최, 2003.4.30까지 modalities(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방식)에 대한 합의 도출
 - 개도국의 반대 이유 : 상기 작업계획안에 대해 준비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고 개도국 능력개발 등을 선행 조건으로 내세움
- 제2차 비농산물 시장접근 그룹 회의(5.29~30)
 - 개도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 개도국지원(DB 구축 등)에 대한 workshop형태로 진행

② 주요 논의사항

- 시장개방을 위한 협상방식(modalities)
 - 관세인하 방식
 - EU·우리나라 등 다수국 : 공식(formula)에 의한 관세인하 방식 주장
 - 미국 : request/offer 등 양자협상방식 선호

- 양허범위, 협상기준 관세, 관세인하의 폭 등이 쟁점

○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인하 의무 경감)

③ 대응방안

○ 협상 초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modalities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상력 집중

- 우리 나라에 가장 유리한 관세인하 공식을 연구·제출하고 동방식이 채택되도록 Friends 그룹을 통해 지지 유도

* DDA협상에서도 UR때와 같이 formula 방식과 request/offer 방식을 병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

- 관세인하의 폭과 정도에 관한 목표 설정후 구체적인 내용은 양자협상을 통해 확정

○ 이를 위하여 산업계와 긴밀한 협조하에 우리측 협상안 작성을 위한 우리산업의 산업별 경쟁력분석 작업 추진

- 산업별로 관세협상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품목별 Grouping 작업을 진행중

* 공산품시장접근분야 대책반회의(산업자원부 주관) 및 10여개 세부 산업별 대응체제 구축 및 우리산업의 세부적인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분야별 다자협상전략 수립

○ 외국의 주요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또는 장벽 완화시 우리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내대책 및 협상 대책 수립을 병행

-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유형화 작업과 동시에 수출실무에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수집 중

나. 규범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① 협상 동향

○도하각료선언에 의해 보조금협정, 반덤핑협정, 지역협정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개선할 것에 합의

- 다만,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은 기존 협정의 기본원칙과 개념은 유지토록 함(개정에 소극적인 미국입장 반영)
- 협상을 2단계로 나누어 각국이 우선 개정 요망사항을 서면 제안서 형식으로 제출하여 개정대상 분야를 선정한 후, 이를 중심으로 협상 진행토록 함

○제1차 규범분야 그룹 회의(3.11)에서 향후 작업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

- * 금년중 5회의 협상회의를 개최하고 기본적으로 3개의 의제별(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로 논의를 진행하되,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절차 동시논의 검토가능

○제2차 규범분야 그룹 회의(5.6~8)

- 우리나라, 일본, 캐나다, 칠레, 브라질 등 주도로 반덤핑 협정 개정을 위한 Friends 그룹 공동제안서 제출
 - 덤핑마진 산정 기준의 엄격화, 조사 절차 강화, 반덤핑 조치 연장 억제 추진 등
- 보조금 분야는 향후 협상에 임하는 각국의 입장 개진 위주로 진행
 - 미국 등 선진국 : 보조금협정의 기본원칙이나 기준등의 유지 강조
 - 인도 등 개도국 : 보조금협정의 개정시 개도국의 이해가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

② 주요 논의사항

○ 반덤핑 : 불임2

○ 보조금 : 불임2

○ 지역협정

- 다자간 무역협정과 지역협정간의 양립가능성 및 규제방안 모색
- 호주, 우리나라, 일본 등 상대적으로 지역협정과 무관했던 국가들이 지역협정에 대한 규제의 강화를 지지하였으나, 최근 전세계적인 지역협정 체결 확산에 동조하면서 관련규정 강화에 대한 관심이 저하

③ 대응방안

○ 반덤핑 분야

- Friends Group과 함께 반덤핑 협정 개정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덤핑마진 산정방식과 조사절차 등을 엄격화하고 명확히 하는데 협상력을 주력할 계획
- 3차 규범분야 그룹회의(7.8~10일 예정)에서 반덤핑분야 2차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가 협의 진행중

○ 보조금 분야

- 보조금 규정의 개정에 대비하여 허용보조금 및 비특정성 중심의 산업지원제도로 산업지원정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요 수출국 시장에 대한 보조금 현황 조사

○ 지역협상 분야

- 우리나라에서 FTA 등 지역협상 추진시 기대이익과 FTA 추진에 따른 WTO 협상과의 상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되
- 전반적으로 WTO에 의한 다자체제를 강화하여 FTA 등 특혜무역협정을 보완적으로만 가능할 수 있도록 협상전략 수립

< 부 록 2 : 반덤핑 및 보조금 분야 논의 사항 >

□ 반덤핑협정 개정 논의사항

- 제로잉(Zeroing)의 금지(협정 제2.4.2조)

- 조사대상 제품의 덤핑마진 산정 시 모델별로 계산된 덤핑마진을 가중평균하면서 “-”의 덤핑마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음
- 이러한 Zeroing의 관행은 정상가격을 높이고 이에 따라 덤핑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

- 원가이하 판매의 기준 조정(협정 제2.2.1조, 주석 5)

- 현행 협정은 조사대상기간 전체 거래물량의 20%이상이 원가이하로 판매된 경우, 이러한 거래를 정상가격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음
- * 이러한 20% 기준은 너무 엄격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정책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가중평균판가와 가중평균원가를 먼저 비교토록 하여, 판가가 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만 20% 기준을 적용하여 원가미만 판매를 정상가격 산정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재심절차의 규정보완(협정 제11.4조)

- 협정 제11조상의 재심(review) 절차에서는 원심절차의 제6조(증거조항)만 준용하고,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어 각 회원국별로 재심절차를 상이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음
- *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에 있어 원심절차에서는 예외적인 가격비교방식인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수출가격의 비교가 재심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원심에서는 2%인 미소덤핑마진을 재심에서는 원심보다 훨씬 작은 0.5%로 강화하여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재심에서 적용되는 절차를 원심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재심시의 각 회원국의 자의성을 배제함

-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 산정(협정 제2.2.2조)

- 협정상 구성가격 산정의 세 가지 방법에 우선순위가 없어 조사당국은 자의적으로 높은 덤핑마진이 산정될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저해
- 세 가지 방법을 협정순서대로 적용하여 조사당국의 자의성 배제

- 구성수출가격의 산정(협정 제2.3조 및 제2.4조)

- 구성수출가격(Constructed Export Price) 산정시 이윤(Profit) 공제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 미국은 피제조기업의 총비용에서 자국소재 현지법인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익을 공제하고 EU는 합리적 근거없이 판가의 5%를 공제
- 구성수출가격과 비교할 정상가격 산정 과정에서도 다른 방법 사용
 - * 미국은 자국에서 발생한 간접판매비 한도까지만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EU는 간접판매비를 차감하지 못하도록 함
- 이와 같이 CEP profit 차감과 CEP offset 과정에서 국가별로 상이하게 사용되는 방법을 통일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일몰재심(sunset review)의 요건강화(협정 제11.3조)

- 현행 협정은 일몰재심 규정의 적용과정에 지나치게 많은 재량을 조사당국에 부여하고 있어, 반덤핑조치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몰재심의 취지 반감
 - * 일부국가에서는 조사당국의 재량에 따라 반덤핑관세가 장기간 연장되는 관행이 있어 반덤핑조치의 연장이 기본이고 종료가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 됨
- 따라서, 반덤핑조치가 5년 경과한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조치가 종결되도록 하고, 반덤핑조치를 계속하려면 새로운 제소절차를 밟도록 함

□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개정 논의사항

- 심각한 손상 및 허용보조금의 연장여부(협정 제31조)

- 제6.1조(심각한 손상), 제8조(허용보조금의 정의) 및 제9조(협의 및 구제) 조항의 5년 한시적용이 99년 말로 만료되었으나, 연장여부가 합의되지 않아 2000년 이후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불비
-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 등은 현행 규정이 운용상 문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연장하자는 입장이나,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은 현 규정이 선진국에 유리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허용보조금의 확대(협정 제8조)

- 현행 협정상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친화적 시설의 설치 등의 일부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개도국은 '정당한 개발목적'을 위한 보조금도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어렵고 무역왜곡적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자 하는 보조금 협정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도 있음
- 따라서 지역개발의 경우 일정비율 내에서 특정성이 있더라도 이를 허용하고, 환경보조금의 경우 현행 20%인 시설개선 비용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기준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타협하는 방안이 적절

- 사실상 특정성(de facto specificity) 개념 명확화

- 현행 협정 제2.1조에서는 외견상 특정성이 없더라도 제한된 수의 기업에 의한 보조금의 사용 등 사실상 특정성이 있는 경우 보조금 협정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사후적으로 제한된 수의 기업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적 기준이 명확하고 당국의 재량권 개입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성 개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다.	서비스
----	-----

① 협상 동향

○ 서비스 분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위하여 '00년부터 협상 시작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 금년부터는 DDA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중

- 도하각료선언문에 의해 최초 양허요청안(initial request)은
'02.6.30, 최초 양허안(initial offer)은 '03.3.31 까지 제출하도록 합
의되어 있음(request/offer방식으로 진행)
- 지금까지는 기존의 협상체계를 통하여 각국이 제출한 분야별
제안서 검토 등 기존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양허
요청안 준비에 주력

○ 제1차 서비스 그룹 회의(3.19~22)에서 수평적 이슈(*) 및 세부 분야별
제안서(*) 검토

* 모든 서비스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로서 서비스 규범의 제정,
자발적 자유화 문제(credit 부여), 최혜국대우(MFN) 면제 처리방안,
자연인의 이동(Mode IV), 서비스 분류문제 등이 협상의제로 논의 중

* WTO에서는 서비스 분야를 크게 12개(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의료, 관광, 문화, 교통, 기타)로 구분하여 협상 진행

○ 제2차 서비스 그룹 회의(6.3~7)

- 세부 분야별 제안서 검토를 최소화하면서 양허요구안 검토에 대비

* 7월 이후 서비스 시장개방을 논의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전망

② 주요 논의사항

○수평적 이슈

- 서비스 규범의 제정
 - 서비스 분야에 적용될 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규정에 대한 제정
-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credit 부여
 - UR협상 이후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취한 자유화 조치에 대한 평가 및 동 조치에 대한 credit 부여 방안
- MFN(최혜국 대우) 면제에 대한 처리
 - 각 회원국이 특정국가에 대해 특혜적인 대우를 취한 경우(MFN면제)에 대한 처리문제(서비스 분야는 폭넓은 MFN면제 인정)
- 자연인의 이동(Mode IV)
 - 인력 이동의 자유화 촉진을 통한 서비스 시장 개방방안에 대한 연구 (개도국에서 주장)

○분야별 양허 협상

- 서비스 분야별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양허표 개정을 위한 논의

③ 대응방안

- 서비스 분야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및 그간 우리나라에서 적극 추진해온 자유화 정책 등을 감안하여, 서비스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
 - 분야별 업계 및 여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허요청안 및 양허안 작성
- 유통, 통신, 해운 등 우리가 비교우위 내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는 해외진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방 요청
 - 시청각, 법률, 교육, 에너지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서는 개방의 폭과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협상전략 수립·추진

① 협상 동향

- WTO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약(MEA)간의 관계, 환경상품·서비스 시장 개방문제 등이 협상의제로 설정
 - 기타 환경라벨링 등은 검토작업후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제1차 환경 그룹 회의(3.21)에서 환경상품은 시장접근 회의에서, 환경 서비스는 서비스협상에서 논의토록 의견 접근
- 제2차 환경 그룹 회의(6.11~12)
 - WTO 규범과 특정무역관련 조치를 규정한 다자간환경협약(MEA)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EU제안서 중심)

② 주요 논의사항

- 환경보호를 위한 폭넓은 무역규제 조치를 주장하는 EU와 이에 반대하는 개도국과의 견해차이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상태
 - GMO 농산물 수출국(美)과 수입국간의 이해관계 대립도 주요 환경 이슈중의 하나임

③ 대응방안

- 수입 GMO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우리의 공산품 수출에 대한 선진국의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부당한 수입규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균형된 협상전략 수립·추진 필요
-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및 환경서비스 산업현황 파악 및 경쟁력 평가 작업을 바탕으로 협상 대응방안 마련
 - 경쟁력 있는 폐기물 사후처리기술 분야 등에 대해서는 무역자유화 적극 추진

① 논의 배경

-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에서는 그동안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구체화 논의, 생명 공학에 대한 특허 보호 및 전통 지식에 대한 보호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옴
- TRIPs 협정 협상 당시 선진국-개도국 간의 의견대립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뉴라운드 협상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재협상이 요구됨

② 협상 동향

- 도하각료회의의 결과,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통보 및 등록을 위한 다자체제 설치 협상을 5차 각료회의까지 종결기로 합의
- i) 여타 품목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 대상 확대 문제, ii) TRIPs 협정과 CBD(생물다양성 협약)간의 관계, iii) 전통지식과 민간 전승물 보호 등에 대한 검토 예정

③ 대응방안

- 우리 나라에서는 포도주 및 주류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하는 경우가 드물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지리적 표시가 거의 없으므로
- 여타 품목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 대상 확대하데 따르는 영향이 미미한바, 비구속적인 성격의 다자등록체제 설립에는 동조
-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한 CBD와 이를 활용한 생명공학 발명의 지재산 보호를 위한 TRIPs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조화롭게 발전·유지되도록 협상 전개

바.	싱가폴이슈(투자,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경쟁정책)
----	------------------------------

* 싱가포르 이슈 : 제1차 싱가포르 각료회의('96년)시, 무역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작업이 진행되었던 4가지 분야

① 협상 동향

- 도하 각료선언문은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 우선 다자규범에 포함시킬 요소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방식에 대해 결정한 후 협상을 진행하도록 규정(현재, 정식 협상의제가 아닌 작업반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선진국은 협상의 준비작업으로서 다자규범의 요소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나,
- 개도국은 협상을 전제하지 않은 교육과정으로 간주,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

② 분야별 협상목적 및 논의사항

□ 투자

- 목적 : 다자간 국제투자협정의 제정을 통해 투자보호 및 자유화
- 주요 논의사항
 - 투자협정의 포괄범위 문제
 - 직접투자(FDI)이외에, 포트폴리오 투자(FPI) 포함 여부
 - 국산부품 사용의무, 일정비율 수출의무, 내국인 고용의무 등 이행의무(PR; Performance Requirement)의 금지 여부
 - 분쟁해결절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것의 허용 여부 등

□ 정부조달

○ 목적 : 정부조달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절차의 공개에 대한 다자간 협정제정을 통해 조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논의

○ 주요 논의사항

- 협정의 적용범위 및 정의, 규정공고 및 정보제공
- 자격심사 및 낙찰결정의 투명성 확보
- 국내 심의절차 및 관련 분쟁해결
- 예외조항 및 개도국 특별대우 등

□ 무역원활화

○ 목적 : 관세와 국경간 무역 절차에 초점 두고 국제 무역 절차의 단순화와 조화를 달성

○ 주요 논의사항

- 정보 및 서류요건 단순화 및 국제적 통일
- 통관 절차 간소화(불필요한 절차 폐지, 원스톱 통관 절차 등)
- 전자 무역(전자수단을 이용한 무역으로 비용과 시간 절약) 등

□ 경쟁정책

○ 목적 : 시장 장벽이 철폐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반경쟁적인 형태(독점, 담합 등)를 지양하고, WTO원칙(내국민 대우, 투명성 등)과 국제무역 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경쟁정책 추진

○ 주요 논의사항

- 핵심원칙(투명성, 비차별원칙, 공정한 절차 등)과 경쟁정책의 부합
- 경성 카르텔(*) 규제

* 경성 카르텔 : 독점력의 형성·강화·행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고정, 수량제한, 시장분할, 고객배분, 입찰조작 등의 적나라한 담합행위

- 개도국의 제도적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협력 등

③ 대응방안

□ 투자

- 우리나라는 WTO 차원의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회원국의 다수를 차지하는 개도국이 협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협정의 범위를 FDI에 한정할 것 등에 동조
- 이러한 기본적 방향하에, 잔존규제의 개선을 추진하면서 투자국으로서의 입장과 투자유치국으로서의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투자 논의에 임할 것임

□ 정부조달

- 우리나라는 GPA가입국으로, 이미 많은 의무를 지고 있어 투명성 협정 체결시 추가적인 부담은 거의 없으나 우리기업의 개도국 조달 시장 진출이 좀더 유리해 지는 만큼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에 찬성

※ 정부조달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27개국이 가입(대부분 선진국). 정보공개의무, 상호성에 기반한 양허목록 등 협정 가입국이 지는 부담이 커서 개도국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음

□ 무역원활화

- 대외무역의존도가 높고 관세행정이 비교적 선진화된 우리로서는 외국 세관통관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파악하면서 무역원활화 Friends 그룹인 Colorado 그룹과 협력하여 관련 다자규범화를 추진

□ 경쟁정책

- 국내적으로 확립된 선진국 수준의 경쟁제도를 바탕으로, 외국인 기업 및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 및 경쟁법 집행 능력의 강화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경쟁 제한적 정책 수단의 점진적 철폐 등에 노력

① 협상 동향

- 전자상거래는 현재, 정식 협상단계가 아닌 특별회의(dedicated session)에서의 논의단계이며, '03년 제5차 멕시코 각료회의시 논의결과 보고후 협상 개시 예정
- '01년 1차 특별회의에 이어, '02.5월 2차 특별회의가 개최되어 전자전송의 분류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

② 주요 논의사항

- 전자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적용규정 문제
 - GATT/GATS 관할 여부
- 디지털제품에 대한 조세 부과 문제
 - 개도국 : 디지털 제품의 무관세에 소극적
 - 선진국 : 디지털 제품의 소비지 과세문제에 관심 집중

③ 대응방안

- 세계무역에서 전자상거래의 선도적 지위와 수출지향적인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감안,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확산에 적극 참여
- 전자상거래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로서 WTO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통해 해외시장개척 기회로 활용
 -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 콘텐츠 산업 등

아.	섬 유
----	-----

① 논의 배경

- '94년 이전까지 섬유교역은 다자간 섬유협정(MFA : Multi-Fiber Arrangement)에 의한 수량규제를 받아 무차별원칙에 대한 예외로 간주
- UR협상 당시 섬유수출 개도국들은 쿼터시스템을 완전 폐지하는 무역자유화를 주장
- UR결과 섬유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의 내용
- 섬유협정은 각국간 체결된 쿼터량에 의해서 제한적인 형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섬유교역을 '05.1.1까지 단계적으로 WTO의 자유무역으로 흡수하는 규범으로,
- 쿼터에 묶여 있는 섬유 및 의류품목에 대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GATT의 일반원칙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임

② 협상 동향

- 현재까지 수입규제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복귀이행이 상당히 부진하여, ATC 취지인 섬유교역의 자유화 달성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미국은 ATC 이행과 관련하여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품목에 대한 통합은 마지막까지 유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③ 대응방안

- 우리나라 섬유업계로서는 ATC체제하의 Quota는 개별품목의 관점에서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 만약 품목별로 선택적인 연장문제가 거론되는 경우에는 우리의 경쟁력이 약한 품목에 대한 복귀연장에 협상력을 집중(예 : 천연섬유 원료(면사, 모사))
- 선진국의 고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섬유수출국과 공조하여 미국 등 선진국의 관세인하를 강력히 요청

非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협상방식과 산업별 영향 분석

2002. 5

산업연구원

1. DDA 공산품 관세인하의 개념과 주요쟁점

(1) 관세인하 협상의 대상과 범위

○ 양허범위의 확대: 관세협상의 대상이 되는 양허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문제

- 관세협상의 대상은 자국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 일종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
-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을 양허한 반면, 개도국의 경우 양허품목의 비중은 약 72% 수준
- 한국의 양허품목의 비중은 90.5%

<표 1> 주요국의 공산품 양허대상 품목 범위

단위: %

국가	미국	EU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브라질	멕시코
양허비중	99.9	100	98.7	90.5	57.5	69.9	100	100

○ 협상기준 관세: 관세협상에 있어 협상의 기준을 실행관세로 할 것인가 또는 양허관세로 할 것인지의 문제

-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는 UR협상의 경우처럼 양허세율을 기준으로 협상을 벌이되, 양허세율이 없는 경우에만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하기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음.
- 미국은 실행관세율을 기준세율로 주장하여 협상을 진행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양허세율을 기준세율로 채택하거나 양자간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
- 한국의 경우 평균양허세율이 11.4%이고 평균실행세율은 7.2%이므로 기준세율은 양허세율로 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 품목별 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의 격차에 대한 분석 필요

○ 관세인하의 폭: 관세를 어느 정도 낮출 것인가의 문제

- 관세인하방식과 협상력에 의해서 결정

(2) 관세인하방식의 개념과 장·단점

○ 관세협상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 관세인하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의 문제: 각국별로 상이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결국 어떠한 관세인하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의해서 결정

- 선진국의 대개도국 요구: 양허품목의 확대와 고관세의 인하
- 개도국의 대선진국 요구: 첩두관세(섬유, 의류, 신발, 자동차 등) 인하, 관세율 경사구조의 개선

○ 관세인하방식은 크게 보아 공식에 의한 인하방식(Formula based Approach), 국별·품목별 협상방식(Request/Offer Approach), 분야별 협상방식(Sectoral Approach) 등으로 대별

- UR협상시에는 공식적용방식으로 약 33%의 평균관세를 인하하는 동시에 부문별 협상(철강 등)과 품목별 R/O 방식의 협상이 병행
- DDA 협상에서도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기는 하지만, 공식적용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R/O방식과 분야별 협상방식을 병행할 가능성
- 공식에 의한 인하방식 v.s 국별·품목별 협상방식(또는 분야별 협상방식)의 이슈: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상력 자체의 차이

① 공식에 의한 인하방식

○ 일괄선형방식: 모든 품목의 관세를 동일한 비율로 인하

- $t_1 = t_0(1-a)$, t_1 : 새로운 관세율, t_0 : 기존의 관세율, a : 인하율을 나타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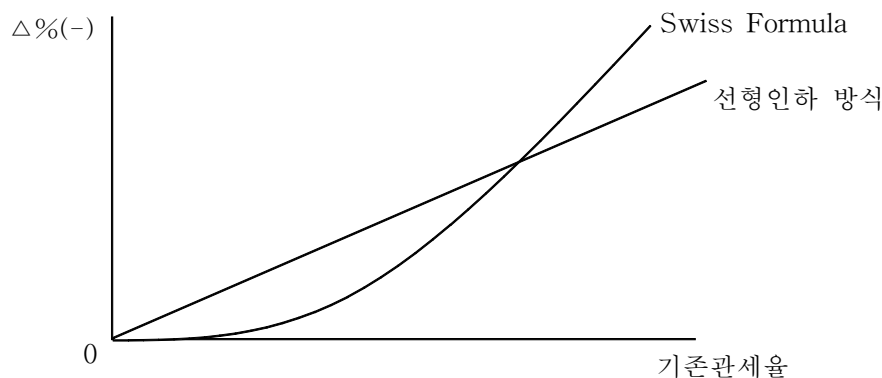
양수

- 관세율 수준을 전반적으로 인하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품목별로 차이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고관세 품목은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단점

○ 스위스 방식(Swiss Formula): 고관세품목의 인하율을 크게 하기 위한 일종의 조화방식

- $t_1 = at_0 / (a + t_0)$
- 일반적으로 낮은 관세의 인하폭은 낮게 하면서 고관세품목의 관세 인하율은 높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각국의 이해관계로 공식도출 합의가 어렵다는 단점

<그림 1> 선형인하방식과 스위스방식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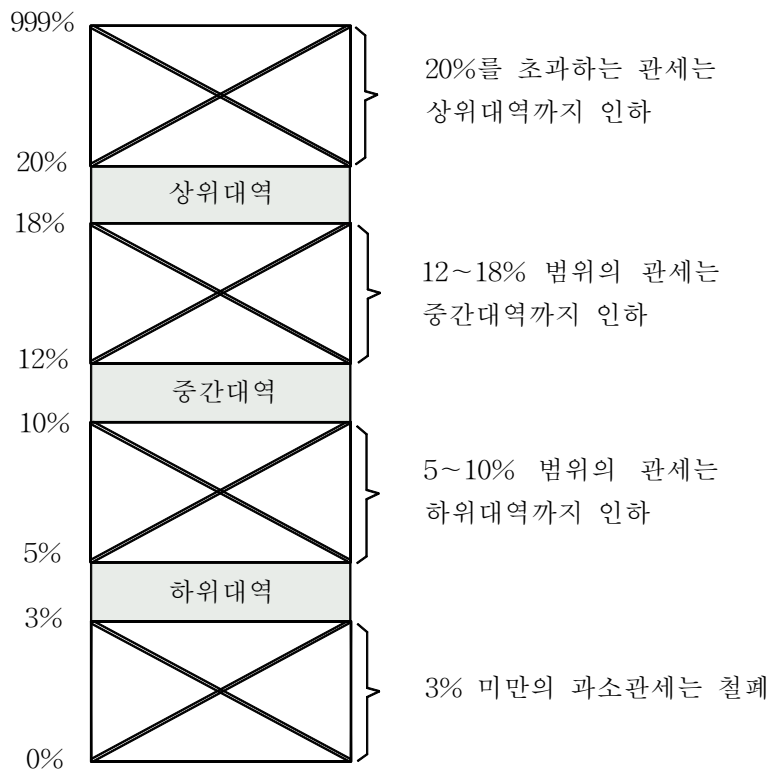


○ EU의 관세조화방식: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력의 차이를 감안하여 차별적인 관세인하를 일정한 공식에 따라 추진하고, 미소관세를 철폐하자는 방식

- 공산품에 대한 각국의 관세율중 3개 대역(18~20%, 10~12%, 3~5%)을 초과하는 관세율을 대역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3% 미만의 미소관세는 제거하여 관세율구조를 단순화하자는 것
- 또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하여 최빈개도국의 평균관세율은

OECD의 8배, 기타 WTO 회원국들은 4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방안

<그림 2> EU가 제안한 관세조화의 개념도



② R/O 방식

-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세인하의 가장 기본적 형식으로서 수입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Request List를 제출하면 수입국은 양허가능한 품목의 Offer List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는 방식

- 협상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식

③ 분야별 협상방식

- 특정 품목 혹은 산업에 국한하여 관세협상을 진행하는 방식

- UR에서 미국은 농업장비, 맥주, 화공, 건설장비, 의료장비 등의 관세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무관세화협상을 제의하여 이를 관철

2. 공산품 관세인하 관련이슈별 주요국의 입장

(1) 관세협상의 범위

- 각국 입장의 차이는 공산품 협상에서 수산물에 포함여부로 집약
 - 노르웨이: 공산품 협상에 수산물을 포함할 것을 명시적으로 주장
 - EU: 비농산물 시장접근에 대한 제안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
 - 일본: 수산 및 임산물에 대해 별도협상을 요구

(2) 관세인하방식과 폭

- EU, 일본 등은 일괄선형인하 또는 관세조화 등 공식적용방식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를 희망
 - 반면, 미국은 공식적용외에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분야별 협상 또는 R/O방식을 병행할 것을 주장

(3) 첩두관세 등

- EU, 일본 등 제안서를 제출한 7개국 모두 첩두관세, 관세율의 경사구조, 미소관세의 제거를 주장
 - 다만,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며, 관세인하방식의 합의와 연계될 가능성

<표 2>

주요국의 입장비교

예상쟁점	EC	홍콩	호주	노르웨이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 공산품 협상의 뉴라운드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수산물도포함)	포함, 단 수산 및 임산물은 별도 협상	포함	포함
· 양허범위 확대 · 관세인하 목표	· 모든 비농산물 · 발전단계에 따라 다른 목표설정	· 모든 공산품 · UR보다 높은 수준	· 모든 공산품 · 선진국 및 개도국에 대한 최고 평균 관세 설정	· 보다 넓게 양허	· 가능한 모든 품목	· 범위 확대 · UR보다 높은 수준	· 모든 품목 양허 · 가능한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 개도국 및 선진국이 같은 인하 목표를 설정, 단 개도국은 이행기간이 선진국보다 장기간
· tariff peak, tariff escalation, nuisance tariff · 투명성 ·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spread	포함	포함	· 포함, 단 nuisance tariff 기준은 2.5% 미만 · 종량세 또는 복합관세의 증가세 전환	· 포함, 단 nuisance tariff 기준은 2.5% 미만 · 종량세의 종가세 전환 · spread 고려	· 포함, 단 nuisance tariff 기준은 2.5% 미만	포함	포함
· 관세협상 방식 · 협상기간 · 이행기간 · 개도국 우대 · 비관세 장벽 · ATL	· tariff band approach(조화인하방식) · 3년 이내 종료 · LDC 산물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접근허용 · 관세평가, 원산지 등 비관세 장벽 고려	· formula cut approach, ATL 등 여타 방식도 고려 · 3년 이내 개도국 이해 및 needs 고려 · ATL 방식도 고려	· formula, sectoral, R/O방식을 병행 · 3년 이내 종료 · 비관세 장벽에 대한 작업 필요 · ATL도 early harvest로 다루어져야 함	· 분야별 협상에 대해서도 개방적일 필요 · LDC에 대한 고려 · 비관세 및 무역원활화 논의도 포함	· formula cut을 원칙으로 무세화 및 관세조화보완 · 3년 이내	· 회원국이 선택 가능 · 3년 이내 · 최빈국 입장 고려 · ATL을 기반으로 협상 추진	· 조기수확방식에 의한 관세철폐, 관세철폐가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 공식 또는 R/O방식 적용 · ATL 기반으로 협상추진, 시애틀 각료회의 이전까지 8개분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뉴라운드의 조기수확으로 취급

자료: 재정경제부, 1999.

3. 非農산물 시장접근 분야 협상 타결 시의 주요 산업별 영향 분석 (잠정적 분석)

(1) DDA협상에 따른 산업별 수출입증대 효과 분석

	수입증대효과	수출증대효과	수출형 vs 수입형
철강	소	소	중립형 산업
자동차	대	대	중립형 산업
조선	소	소	중립형 산업
섬유	대	개도국 : 대 선진국 : 소	수입형 산업
일반기계	소	미, 일 : 소 중 : 대	중립형 산업
비철금속	원자재 : 소 2차가공 : 대	원자재 : 소 2차가공 : 소	수입형 산업
신발	대	개도국 : 대 선진국 : 소	수입형 산업
통신기기	소	개도국: 대 선진국: 소	수출형 산업
반도체	소	미, 일, EU :소 중 : 대	중립형 산업
전자부품	소	중	중립 or 수출형
컴퓨터	중 주요 수입대상국 : 일, 중, 대만	중 주요 수출대상국 : 중 국	중립형 산업
생물	중	소	수입형 산업 (효과는 크지 않음)
환경설비및기기	소	대	수출형 산업

(2) DDA협상에 따른 수출입 영향 특기품목 및 특기사항

	수입영향품목	수출영향품목	특기사항
철강	봉형강류, 아연 등 수입 2자리 수 증가 예상	-	무관세화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에 수출확대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수입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 (수입증가 효과 6%)
자동차	일본품 수입: 대 미국품 수입: 소	EU,중국을 비롯한 개도국 수출 크게 증가예상	자동차는 수출에 비해 수입은 미미한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되면 수입증가율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수입증가규모는 크지 않을 것임.
섬유	의류 중저가 제품	폴리에스터를 중심으로 한 화섬직물	2001년 현재 국내 의류수입시장의 73%를 중국이 점유
일반기계	-	-	일반기계는 가격보다는 품질에 의해 수출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세협상의 효과는 적음
비철금속	알루미늄, 주석, 아연 등	정관, 피, 빌렛 등 원자재	-
신발	중저가 제품	-	-
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메모리반도체	-
전자부품	전자관 수동부품 등	전자관 수동부품 등	수출형 부품 : 전자관(LCD,음극선관, 전자관부품 등) 중립형 부품 : 건전지, 기타전자 수입형 부품 : 수동부품(축전기, 저항기, 변성기) 축전지 등
컴퓨터	-	-	수출증대를 위한 협상대상국 : 중국
생물	치료/진단제 첨단 기기류	분석/공정기기	생물산업의 경우는 수출증대보다는 수입확대효과가 큰 수입형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그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을 전망
환경설비및기기	-	집진기 수처리설비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환경설비산업이 수출형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3) 종합의견

- 非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협상은 DDA 협상 분야 중에서 전통적으로 각국에 수출과 수입 증대 면에서 가장 중립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해 온 분야임.
 - 대상산업들이 주로 공산품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공산품 분야에서 무역자유화가 진전되는 만큼 제조업에 경쟁력을 가진 국가들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타남.
 - 우리 나라도 DDA 협상 타결 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함.
- 국제적인 통상협상에서 협상에 나서는 공무원들의 가장 큰 애로는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지지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데 반해서 협상의 결과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점임.
 - 非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의 경우에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 특히 수출기업들이 협상의 내용과 동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첨부: 주요 산업별 영향 분석 (잠정)

(1) 철강

가. 수입증대 효과의 정도

- 철강산업은 무관세화 시 저가 수입재의 국내시장 잠식 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격탄력성이 비교적 큰 철근 등의 봉형강류와 아연도, STS 등의 수입이 두 자리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전체로는 5% 전후의 수입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한편 철광석, 고철 등 원부자재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생산활동에 영향을 받으므로 수입증가에는 별 영향이 없음.

나. 수출증대 효과의 정도

- 수출확대에는 다소 유리한 여건이지만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 일본 등의 현행 관세율이 우리 나라보다 낮은 수준에 있어 수출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동남아에서는 비관세장벽이 함께 논의된다면 수출증대효과가 다소 나타날 전망

다. 종합적인 평가

- 무관세화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에 수출확대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수입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철강산업은 이미 WTO협정에 의거하여 주요국의 철강제품 관세가 2004년부터 무세화될 예정으로 일정이 진행중

(2) 자동차

가. 수입증대 효과의 정도

-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시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수준
- 주요 수입대상국은 독일(33.2%), 일본(21.2%), 미국(13.7%)의 순임. 협상타결 후 일본에 대한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미국 자동차의 수입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나. 수출증대 효과의 정도

- 미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대상국의 관세수준은 우리 수준을 상회함. 미국도 상용차는 우리보다 관세수준이 높음.
-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크게 낮아지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
 - 특히 유럽이나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주요국의 자동차 분야 관세율 비교

단위 : %

국명	승용차	상용차	국명	승용차	상용차
한국	8.0	10.0	인도	101.7	67.1
미국	2.5	25.0	인도네시아	65.0~80.0	45.0
캐나다	6.1	6.1	이란	25.0	25.0
EU	10.0	10.2 or 22.0	말레이시아	140.0~300.0	30.0
대만	30.0	30.0 or 40.0	호주	15.0	5.0
중국	80.0	25.0~50.0	멕시코	8.0	8.0
태국	80.0	44.0~66.0	브라질	23.0	23.0
일본	0	0	남아공아국	47.0	47.0

다. 종합적인 평가

- 현재 자동차는 수출에 비해 수입은 미미한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되면 수입증가율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수입증가규모는 크지 않을 것임.
- 반면 수출증대 효과는 커서 결과적으로 국내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3) 섬유

가. 수입증대 효과의 정도

- 섬유·의류제품은 국제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가격변동에 따른 영향이 매우 높음.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여타 제품에 비해 높게 설정해 놓고 있음.
- 따라서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증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가격 변동에 따른 효과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경우 그리 크지 않지만, 중저가제품의 경우 매우 큼. 수입관세가 인하될 경우 중국 등 동남아국들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품목별로는 사, 직물에 비해 의류부문이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2001년 현재 국내 의류수입시장의 72.8%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음.

나. 수출증대 효과의 정도

- 여타 국가들의 관세 인하 효과는 관세가 매우 높은 중국 등 개도권 국가로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선진국 수출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품목별로는 우리의 경쟁력이 높은 폴리에스터를 중심으로 한 화학섬직물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 종합적인 평가

- 섬유산업은 관세 인하로 인해 수입 확대가 수출 확대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

주요국들의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 비교

국 가	관세율	국 가	관세율	국 가	관세율
인 도	40~70%	베트남	25~50%	한 국	8~11%
중 국	20~36%	인도네시아	20~30%	대 만	5~20%
이집트	25~54%	말레이시아	20~30%	미 국	16%
방글라데시	60~300%	태 국	20~45%	일 본	7~16%
파키스탄	40~60%	남아프리카	28~78%	E U	4~13%

자료 : American Textile Manufactures Institute, *A Report on Market Access for U.S. Textile and Apparel Products Five Years into the WTO*, March 2000

(4) 일반기계

가. 수입증대 효과의 정도

- 일반기계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자본재로서 수입의 판단유무가 가격보다는 제품의 정밀도나 내구성 등 품질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기 때문에 DDA협상의 공산품 시장접근 협상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추가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증대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

나. 산업별 수출증대 효과의 정도

- 우리의 주요 3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일본 가운데 DDA협상에 따

른 수출증대 효과가 중국에 대해서는 금형, 굴삭기, 일부 농기계분야에서 기대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역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공작기계의 경우 중국도 자국의 설비고급화 차원에서 실질수입관세율을 이미 한 자리수로 조정하여 관세인하에 따른 우리의 수출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다. 산업별 수출수입 증대효과의 판단

- 일반기계는 수출증대 및 수입확대효과가 모두 크지 않은 중립형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5) 비철금속

가. 수입증대 효과의 정도

- 비철산업은 원료를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무관세화가 원자재 수입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차가공제품의 수입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동 2차제품을 제외한 알루미늄, 주석, 아연 등의 2차 가공제품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국내 관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관세가 인하된다면 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

나. 수출증대 효과의 정도

- 비철금속 1차 제련 등은 내수형산업이므로 수출증대 효과가 없지만 정광, 괴, 빌렛 등 원자재 관련 관세의 경우 현재 선진국이 거의 무관세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관세가 인하된다면 비철 2차 가공업계에 원가절감 및 경쟁력 향상 효과가 나타나 수출이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다. 종합적인 평가

- 원자재는 관세효과에 대해 중립형이지만 2차제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6) 반도체

- 반도체의 경우 WTO의 ITA-I에 가입된 국가는 제로관세

가. 산업별 수입증대 효과의 정도

- 우리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수입의 억제 효과는 매우 작은 수준
 - 주요 수입국은 미국이나 이미 무관세화되어 DDA협상에 별영향 없음.

나. 수출증대 효과의 정도

-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수입의 억제효과가 있었으므로 관세장벽의 정도에 따라 수출 증대 효과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
 - 對미국, 일본, EU: 무관세이므로 영향 작을 듯
 - 對중국: 영향은 상당한 수준 (현재 관세 13.3%이나 2005년까지 무관세화 계획)

다. 종합적인 평가

-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되나, 非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역으로 수입증대가 예상

(7) 전자부품

가. 수입증대 효과의 정도

- 일반전자부품의 관세율은 8%로, 관세환급절차에 따라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환급제도에 따라 환급을 받고 있어, 수입 관세에 의한 폐지 및 관세율 하락에 의한 수입억제효과는 10% 미만에 그치고 있으므로 수입증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중점 협상국가 : 일본, 중국, 대만, 미국 등
- 품목별 주요 수입대상국(2001년 기준 : 총 40억 5천만달러)
 - 전자관(총 7억 6,200만달러 :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 수동부품(총 10억 5,500만달러 : 일본, 중국 등)
 - 기구부품(총 10억 7,600만달러 : 일본, 중국, 대만, 미국 등)
 - 건전지 및 축전지(총 6억 7,100만달러 : 일본, 중국, 미국, 대만 등)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총 4억 1,300만달러 :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
 - 기타 전자부품(총 7,000만달러 : 중국, 일본 등)

나. 수출증대 효과의 정도

- DDA 협상 타결 시 전자부품산업의 수출증대효과는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
 - 중점 협상 국가 : 중국, 일본, 미국 홍콩, 말레이시아, 독일 등)
- 품목별 수출대상국(2001년 기준 : 총 49억 9천만달러)
 - 전자관(27억 4,300만달러 : 중국, 멕시코, 홍콩, 말레이시아 등)
 - 수동부품(6억 3,000만달러 :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 기구부품(9억 1,700만달러 : 미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 건전지 및 축전지(4억 1,900만달러 :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등)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2억 1,500만달러 : 독일, 미국, 홍콩, 일본 등)

- 기타 전자부품(6,800만달러 : 중국, 독일, 홍콩, 미국 등)

다. 종합적인 평가

- 일반전자부품중 비중이 높은 전자관, 인쇄회로 기판이 수출형부품이기 때문에 상대방 관세율의 하락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로 인한 전체 일반전자부품의 수출은 다소 증대할 것으로 예상

- 수출형 부품 : 전자관(LCD, 음극선관, 전자관부품 등)
인쇄회로(PCB)
- 중립형 부품 : 건전지, 기타전자부품
- 수입형 부품 : 수동부품(축전기, 저항기, 변성기) 축전지,
폐건전지, 센서

(8) 컴퓨터산업

가. 수입증대 효과의 정도

- 수입증대 예상효과는 중간 정도로 예상
 - 주요 수입 대상국 : 일본, 중국, 대만
 - 수입 증대 예상국 : 중국

나. 수출증대 효과의 정도

- 수출증대 효과도 중간 정도로 예상
 - 주요 수출대상국 : 미국, 일본, 중국
 - 수출증대를 위한 협상대상국 : 중국

다. 종합적인 평가

- 수출 및 수입의 예상 효과가 비교적 중립적인 산업으로 평가

(9) 환경설비산업

가. 수입증대 효과의 정도

- 우리나라 환경설비(정확하게는 환경상품임)산업의 평균관세율은 8% 내외인 반면 여타 선진국의 평균관세율은 3% 내외임.
 - 단일업종의 품목과 달리 주문형 생산인 데다가 관세율이 선진국과 상당 근접한 수준에 있어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는 극히 미미

나. 수출증대 효과

- 개도국의 환경설비 평균관세율은 20% 내외의 수준으로 우리와 다소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향후 개도국의 환경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도국의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우리 환경산업의 대개도국 수출은 다소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대개도국 주요 수출증대 예상 품목은 집진기, 수처리 설비 등임.

다. 종합적인 평가

-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환경설비산업이 수출형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10) 생물산업

가. 수입증대 효과의 정도

- 생물산업은 신기술 및 연구개발 기반 산업으로, 산업의 세부분야

중 생물의학, 생물공정, 생물화학 분야의 신소재·기기류에 있어 선진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임. 따라서 DDA협상의 공산품 시장접근 협상이 완료될 경우 추가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가 중간정도(중) 나타날 것으로 판단

- 특히 치료/진단제, 첨단 기기류, 원료용 효소/시약의 수입증대가 예상됨.

나. 수출증대 효과의 정도

- 국내 생물산업의 수출 품목은 기능성 식품 등 비교적 저부가 가치의 제품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음. DDA협상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대상 수출국 중 구미 선진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수출품목인 유전자 서열분석기 등의 분석/공정 기기의 경우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증대가 약간 예상되기는 하지만 첨단기기의 경우 기능/기술의 경쟁력이 중요하므로 관세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것임.

다. 종합적인 평가

- 생물산업의 경우는 수출증대보다는 수입확대효과가 큰 수입형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그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을 전망

WTO/DDA 규범분야 협상동향

- 반덤핑분야를 중심으로 -

2002. 6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팀
과장 조 학 희

목 차

I. 도하 각료선언 규범분야 주요내용	1
II. 反덤핑 규제동향	4
III. 규범분야 협상동향 및 전망	7
IV. 우리나라의 협상대응 현황 (반덤핑분야를 중심으로) ...	12
V. 지방 무역업체 참고사항 (지원제도 안내)	15
[별첨] 수입규제 대응자금 지원신청 서류 및 양식 견본	16

I. 도하 각료선언 규범분야 내용

1. 배 경

- UR협상(86-93.12) 결과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을 절충하면서 UR 이전 반덤핑 협정을 보다 명료화하고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다소 개선
- 그러나 수출국과 수입국 입장의 막바지 절충과정에서 특히 미국 등의 반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다 명료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매년 많은 국가들이 반덤핑조치를 발동하면서 아직도 반덤핑 조치가 남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상 필요

2. 경과 및 규범분야 내용

- 지난해 개최된 WTO 제4차각료회의(2001.11.9~14, 카타르 도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할 것을 선언하는 『도하 각료선언 (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
- 동 선언문의 총 52개 구문 중 3개 구문(para. 28~30)이 규범(WTO Rules & DSU)과 관련된 내용임 (조문원문 참조)

(1) 반덤핑 및 보조금 · 상계조치 협정

- 반덤핑협정, 보조금 · 상계조치 협정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의 협상을 개시
 - 협정의 기본개념, 취지, 유효성, 그리고 수단(instruments)과 목적 등은 유지
 - 협상 초기단계에서는 무역왜곡적인 관행에 기본원칙을 포함하여 조항을 명료화하고 개선대상 조항을 제시하는데 주력
- ※ 일부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안이 포함되긴 했지만, 반덤핑 협정 개정협상에 대한 미국내 산업계 및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개시를 선언에 명시한 점이 다소 성과

(2) 수산 보조금

- 보조금 · 상계조치협정 개정협상시 수산보조금 관련 규정을 명확화 하고 개선함

(3) 지역협정

- 지역무역협정에 적용될 WTO조항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의 협상 개시

(4) 분쟁해결양해

- 분쟁해결양해 개정에 대한 협상 개시
- 협상을 통해 2003년 5월 이전에 균형된 개정안을 도출
- ※ 일괄타결 원칙의 예외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기에 발효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 해당조문 원문>

WTO Rules

28. In the light of experience and of the increasing application of these instruments by members, we agree to negotiations aimed at clarifying and improving disciplines under the Agreements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and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hile preserving the basic concepts, principles and effectiveness of these Agreements and their instruments and objectiv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participants. In the initial phase of the negotiations, participants will indicate the provisions, including disciplines on trade distorting practices, that they seek to clarify and improve in the subsequent phase. In the context of these negotiations, participants shall also aim to clarify and improve WTO disciplines on fisheries subsidies,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this sector to developing countries. We note that fisheries subsidies are also referred to in paragraph 31.

29. We also agree to negotiations aimed at clarifying and improving disciplines and procedures under the existing WTO provisions applying to regional trade agreements. The negotiation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30. We agree to negotiations on improvements and clarificat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The negotiations should be based on the work done thus far as well as any additional proposals by members, and aim to agree on improvements and clarifications not later than May 2003, at which time we will take steps to ensure that the results enter into force as soon as possible there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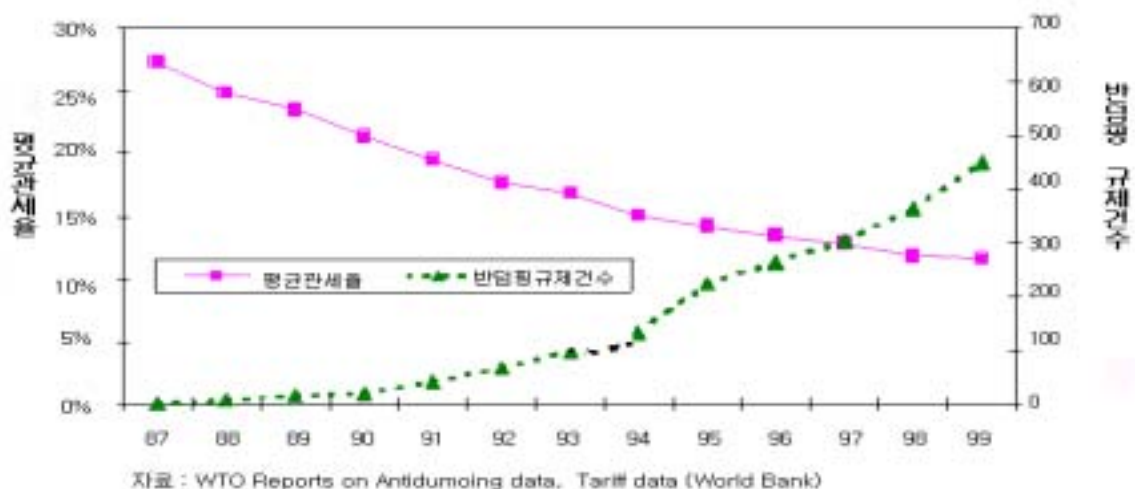
II. 反덤핑 규제동향

1. 전세계의 반덤핑 규제동향

— 관세율 인하와 반덤핑 규제의 증가

- o 8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인 관세장벽의 철폐, 완화로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인하된 데 반비례하여 반덤핑 규제는 급격히 증가
- o 90년대 들어 반덤핑규제는 80년대 대비 약 60% 증가
 - 80년대 : 1,558건 → '90년대 : 2,483건 (59.4% 증가)
 - 반덤핑법 보유국 변화 : 93년 12개국 → 2000년 말 62개국
 - 반덤핑조치 활용국 : 28개국 (2000년말)
 - 특히 반덤핑규제를 사용하지 않던 개도국 규제건수가 크게 증가
 - 남아공 : 17건(95년) → 105건(2000년) (518% 증가)
 - 인 도 : 13건(95년) → 98건(2000년) (654% 증가)

평균관세율 변화와 반덤핑 조치 건수 (新 규제국 기준)



주) 新 규제국 : 전통적으로 반덤핑제도를 주로 사용해 왔던 미국, 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

2. 우리나라의 피소현황

— 세계 2위의 반덤핑 피규제국

- o WTO 출범 이후 2001년까지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빈번히 반덤핑 조사개시 및 규제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됨

연도별 신규 被조사개시 및 규제 건수(1995-2001)

<피 조사개시>

(단위 : 건)

순위	국 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12)	계	연평균
1	중 국	20	43	33	28	41	43	47	255	36.4
2	한 국	14	11	15	24	34	21	19	138	19.7
3	미 국	12	21	15	15	14	12	13	102	14.6
4	대 만	4	9	16	10	22	16	19	96	13.7
5	일 본	5	6	12	13	22	9	12	79	11.3
	전세계	157	224	243	254	356	281	330	1,845	263.6

자료 : WTO 보고서

<피 규제>

(단위 : 건)

순위	국 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6)	계	연평균
1	중 국	26	15	33	24	20	30	9	157	24.2
2	한 국	4	5	3	12	13	22	10	69	10.6
3	미 국	8	4	9	11	8	13	4	57	8.8
4	일 본	5	6	5	7	10	19	4	56	8.6
5	러시아	8	3	9	4	15	9	5	53	8.2
	전세계	118	86	124	162	181	235	85	991	152.5

자료 : WTO 보고서

- 2001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총 108건(7건은 상계관세도 동시규제)의 반덤핑조치를 부과 받고 있음
 - o 특히 세계적 추이와 같이 인도 15건, 남아공 10건 등 최근 반덤핑규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의 규제가 급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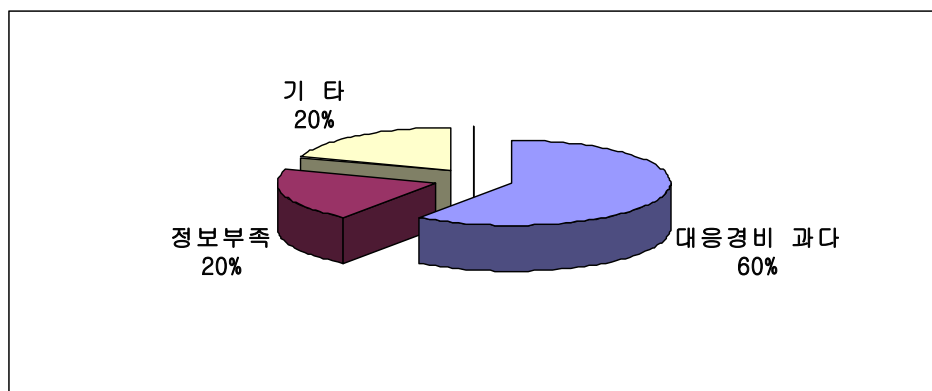
국별 對韓 反덤핑규제 현황(2001. 12월말)

(단위 : 건수)

국가 규제형태	미국	캐나다	중남미	EU	EU외 유럽 /아프리카	호 주 뉴질랜드	아시아	계
반덤핑 규제	20	5	14	12	15 (남아공10)	8	34 (인도15)	108

- 해외시장에서 이처럼 빈번히 반덤핑규제를 당해 국내 무역업체의 수출차질은 물론 조사당국의 답변서 제출 등 대응을 위해 막대한 전문가(변호사·회계사)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o 2001년 무역협회가 조사한 바에 건당 평균 1.1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반덤핑 조사를 당하면 대응비용이 막대하여 사실상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음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지 않는 이유



자료 : 무역협회 수입규제대응실태조사(2001. 5)

Ⅲ. 규범분야 협상동향 및 전망

1. 협상경과

(1) DDA규범협상그룹 구성

- 2002. 2. 1 제1차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통해 분야별 협상그룹 구성 합의
 - o 규범협상 그룹 의장 : Grosser 제네바주재 뉴질랜드 대사

(2) 제1차 회의(3.11, 제네바)

- 회의일정 합의
 - o 제2차 : 5.6~8
 - o 제3차 : 7.8~10
 - o 제4차 : 10.16~18
 - o 제5차 : 11.25~27
- 회의 절차적 문제 협의
 - o 각국 제안서는 회의 10일전 제출
 - o 당분간은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등 3개 의제로 구분(수산물보조금은 보조금 협상의 일환으로 논의하나 제안서에 따라 독립적 Topic으로 논의 가능)

(3) 제2차 회의(5.6~8, 제네바)¹⁾

- 세부 의제별 각국 제안서에 대한 입장표명 및 논의

<반덤핑>

- o 우리나라 등 14 반덤핑 Friends국가²⁾는 공동제안서를 통해,

1) 산업자원부, 'WTO/DDA 제2차 규범협상 회의결과'에서 발췌

- 반덤핑조치가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덤핑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 Zeroing의 금지, Public interest 고려 등 12개의 우선 개정대상을 논의의제로 제시하였음
- o 미국은 전통적인 사용자들보다 개도국들에 의한 반덤핑조치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행 반덤핑협정의 기본틀이 유지되는 선에서 협정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o EC는 7월 회의 전에 서면 제안서 제출의사를 밝히면서 개정 대상으로 제시된 항목들이 기술적인 사항, 개도국 관심사항, 분쟁판정 등에 의해 추가 명확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 o 캐나다, 인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도 협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표명

<일반보조금 분야>

- o 인도, 캐나다, 브라질 등은 개도국 특례조항 강화, 허용보조금 부활, 수출보조금 개정 및 수출신용 조항 개정 등을 서면 제안서를 통해 주장
- o 이에 대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은 개도국들의 이해가 협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2) 반덤핑협정 개정을 적극 찬성하는 국가들로 한국, 일본,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콩,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터키

- 미국, 노르웨이는 개정논의가 보조금협정의 기본원칙이나 기준을 변경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함
- EC는 개정이 논의되는 항목들이 기술적이고 복잡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 우리나라는 특정입장을 전제하지 않고 수출신용조항 개정제도가 특정분쟁의 연장선 위에서 제시된 것인지 등 사실여부만을 확인함

<수산보조금 분야>

- 뉴질랜드, 호주, 미국 등 Fish Friends 8개국은 공동제안서를 통해 수산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잉어획으로 교역이 왜곡되고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지적하고,
 - 수산물의 고유한 특성 등으로 현행 보조금 협정 적용이 부적절하므로 수산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규정의 신설 필요성을 제기
-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대립
 - 수산보조금의 무역왜곡적인 측면에 공감하는 노르웨이, 멕시코,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등은 무역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산보조금을 별도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주장
 - 우리나라, 일본은 전세계 어획량의 95%가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이루어짐을 지적하면서, 어족자원 고갈의 원인은 보조금이 아닌 관리정책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수산보조금의 별도규제에 반대

<지역협정 분야>

- 호주는 제안서를 통해 WTO 협정과 합치되지 않는 지역협정의 확대 추세에 우려를 표명하며,
 - 지역협정이 체약국간 교역을 촉진하되,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하여야 함을 강조
 - 개정이 필요한 항목들을 절차적인 것과 협정전반에 연계되어 있는 문제로 구분하여 제시
- 우리나라, 홍콩 등은 지역협정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최혜국세율 인하에 지역협정 체약국들이 소극적이어서 역외차별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 역외차별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각료선언문의 위임사항임을 강조
- 헝가리, 스위스, 캐나다, 미국 등은 기본적으로 지역협정이 다자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하고,
 - 지역협정 조항을 WTO 다른 협정들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과 지역협정의 통보절차 강화 등 투명성 제고에 관심 표명

2. 전 망

- 제2차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기초하여 회원국들이 협정 개정방향에 대하여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등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

- 차기 회의(제3차 : 7.8~10)에서는 미국, EC 등 주요국들이 서면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도국들도 개도국 특례를 실현화시키기 위한 제안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 o 다수의 제안서를 기초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회의에 제출된 제안서의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 이견이 있는 국가들이 각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전망

IV. 우리나라의 협상대응 현황 (반덤핑분야를 중심으로)

1. WTO/DDA 반덤핑대책반 구성 및 운영

— 목적 : 주요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한 반덤핑협상 대책 (협상안 및 협상전략) 수립

— 구성

o 정부 :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기획단·무역위원회, 외교부 WTO과, 재경부 관세제도과

o 협회 : 무역협회, 철강협회, 전자산업진흥회, 화섬협회, 석유화학공업협회

o 업계 : 삼성전자, LG전자, 포항종합제철

— 주요활동 및 회의결과

o 반덤핑 협상안(제안서) 작성 및 협상대책 협의

o 회의실적

- 제1차회의(1.21) : 반덤핑 협상 논의동향 및 주요쟁점 토론

- 제2차회의(3.15) : 협정개정에 대한 업계 우선순위 조사

- 제3차회의(4.1)) : 제1차 제안서 작성을 위한 의견 수렴

2. 협상 예상 쟁점 및 우리나라(업계) 관심사항

- 우리나라 제안서(안)를 중심으로 -

— 현행 WTO반덤핑협정에서 의미가 불명료하거나 문제가 있어 조사당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의 남용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조항

(1) 제로잉(Zeroing) 금지 (협정 제2.4.2조)

- o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 가격비교시(모델내 또는 모델별로 계산된 덤핑마진의 가중평균시) '마이너스(-)' 마진을 '0'으로 처리하여 고율의 덤핑마진을 산출하는 문제

=> 마이너스마진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협정에 명문화

(2) 원가미만 판매(Sales below cost)의 기준 (협정 제2.2.1조 및 주석5)

- o 원가미만 판매가 20%이상인 경우 비정상적인 거래로 분류되어 정상가격 산정시 제외

=> 원가미만 판매를 고려할 때 '20%기준' 조건 이외에 가중평균 판매가격(AP)과 가중평균 생산원가(AC)를 비교토록한 조건도 동시에 충족토록 협정 개정

③ 재심절차 규정의 보완(협정 제11.4)

- o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원심과 재심 기준이 달라짐으로서 재심절차에 조사당국의 자의성이 존재

=> 재심에 적용되는 절차를 원심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심시 각국의 자의성 배제

④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의 산정 (협정 제2.2.2조)

- o 구성가격 산정의 세가지 방법에 명확한 우선순위가 없어 조사당국이 수출자에게 불리한 덤핑마진이 산정될 수 있는 방법을 선호

=> 구성가격 산정의 세가지 방법에 우선순위를 두고 세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조사당국의 자의성 배제

⑤ 구성수출가격(Constructed Export Price)의 산정 (협정 제2.3조 및 제2.4조)

- o 구성수출가격 산정을 위한 CEP Profit공제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조사당국이 임의로 기준(예 : 5%)을 사용함에 따라 고율의 덤핑마진 사례 발생

=> CEP Profit 공제시 추정이익(Presumed profit)이 아닌 실제이익(Actual profit)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사당국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방식 통일

⑥ 종료재심의 요건 강화 (협정 제11.3조)

- o 반덤핑조치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UR협상을 통해 도입된 일몰재심에도 불구하고 각국 조사당국이 주관적 예측에 근거하여 반덤핑조치를 존속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몰재심 취지 반감

=> 5년 경과후 자동적으로 조치가 종결되도록 하고 조치를 계속하려 할 경우 새로운 제소절차를 밟도록 함

V. 지방 무역업체 참고사항 : 지원제도 안내

1. 목 적

- 외국으로부터 덤핑혐의로 제소되거나 외국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고용할 경우 고용경비중 일부를 지원, 해당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

2. 재원규모

- 2002년 : 4.5억원
 - 수입규제대책사업비(해외) : 4억원
 - 산업피해구제기금(국내) : 5천만원(*)
- * 2001년에는 2.5억원이었으나 재원부족으로 2002년 5천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중소기업청이 국고예산으로 반영 예정

3. 지원대상

- 해외시장에서 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제소를 당해 변호사나 회계사를 고용한 경우(해외)
- 외국으로부터의 덤핑, 수입금증, 지재권 침해로 무역위원회에 산업 피해 구제신청을 위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고용(국내)

4. 업체당 지원한도

- 제소(또는 피소)건당 총소요금액의 1/2 이내, 최대 5천만원
- 지원조건 : 무상지원

5. 신청서류 : 별첨 참조

6.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팀 (☎6000-5194 / Fax6000-5181)

<별첨> 수입규제대응자금 지원신청 서류 및 양식 견본

<별첨>

수입규제 대응자금 지원신청 서류 및 양식 견본

1. 신청공문(양식 없음)
2. 약정서(양식)
3. 수입규제조치대응(산업피해구제신청)을 위한 예산지원신청서(양식)
4. 해당국 관보 사본(조사개시, 예비/최종판정 등)
5. 변호사(회계사)와의 계약서 사본
6.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
 - 계좌 통장인감이 법인인감과 상이할 경우 필요
7. 입금을 희망하는 계좌 통장표지 사본 (이상 신청서 접수시 제출)
8. 대응종료후 제출 : 대응사례 및 관련 대응자료 사본(답변서 등)

約 定 書

OOOO는 韓國貿易協會로부터 수입규제 대응자금(또는 산업피해구제기금)을 支援 받음에 있어 下記事項을 遵守할 것을 約定합니다.

1. 동 자금은 자체수입과 구분되는 별도 계정의 설치·관리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법」과 관계법률 및 무역협회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2.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교부신청서 및 보고서, 사업보고 및 결산서, 자금사용관련 증빙제출 등 사후관리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한다(붙임 서식 참조).
3. 동 자금은 무역협회회장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자금을 지정된 용도외에 임의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동 자금으로 발생한 수입(기타수입 및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등은 당해사업 종료시 또는 결산시 이를 반납한다.
5. 동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의 위반, 지원결정 내용 또는 무역협회회장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자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 등 여타의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02년 OO월 OO일

업체 [단체] 명:
주 소:
대 표 자:

韓國貿易協會 會長 貴下

수입규제조치대응(또는 산업피해구제신청)을 위한 예산지원 신청서

1. 신 청 자:

2. 신 청 일: 2002년 OO월 OO일

3. 신청내역

품 목 명	총계약금	업체부담		지원신청		비 고
		금 액	%	금 액	%	
	U\$ ₩					

※ 1) 업체부담액 예치 증명서 첨부 (업체의 일부 부담 필수)

2) 예산한도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3) %는 총 계약금액 대비 비중임

4. 계약내용

계약기관	
계 약 일	2002년 OO월 OO일
주요 계약내용 (대금지급조건 포함)	o 계약내용을 요약 정리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사와의 법률행위에 사용하고자 이에 사용인감
계를 제출합니다.

2002. OO. OO.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주) OO물산

1. 신청업체 개요

- o 무역업신고번호:
- o 대 표 자:
- o 종업원수:
- o 주 소:
- o 연 락 처: (전화)

2. 피소 개요

- o 피소일자:
- o 제 소 자:
- o 피 소 국:
- o 피소품목:
- o 조사대상기간: OOOO. O ~ OOOO. O
- o 피소대응관련 주요일지
 - 2002. 0 반덤핑 피소
 - 2002. 0 예비판정 (마진율 OO.O%)
 - 2002. 0 최종판정 (마진율 OO.O%)
 - 2002. 0 연례재심 (마진율 OO.O%)
 - 2002. 0 일몰재심 (지속판정 /조치종결)

3. OO물산의 OOOO품목 수출실적

(천달러, %)

	1999	2000	2001
총 수 출(A)	0,000 (00.0)	0,000 (00.0)	0,000 (00.0)
대 미 수출(B)	0,000 (00.0)	0,000 (00.0)	0,000 (00.0)
비 중(B/A)	0.0	0.0	0.0

주) ()내는 전년동기비 증감율

4. 국내회계법인 및 현지 변호사 고용계약 내용

구 분	법 인 명	금 액	비 고
국내회계법인			
현지 변호사			
합 계			

5. 지원요청금액 및 산정기준

o 지원요청금액 : 원(₩)

- 변호사 고용경비(약 원)중 약 %에 해당

o 지원이 필요한 사유

- 업체사정 및 해당국 시장의 중요성, 여타국으로의 수출선 전환의 어려움 등 지원 여부 및 금액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간략하게 기재

WORLD TRADE ORGANIZATION

WT/MIN(01)/DEC/W/1
14 November 2001

(01-5769)

MINISTERIAL CONFERENCE
Fourth Session
Doha, 9 - 14 November 2001

MINISTERIAL DECLARATION

1.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embodied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economic growth, development and employment throughout the past fifty years. We are determined, particularly in the light of the global economic slowdown, to maintain the process of reform and liberalization of trade policies, thus ensuring that the system plays its full part in promoting recovery, growth and development. We therefore strongly reaffirm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set out in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pledge to reject the use of protectionism.
2. International trade can play a major role in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alleviation of poverty. We recognize the need for all our peoples to benefit from the increased opportunities and welfare gains that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generates. The majority of WTO Members are developing countries. We seek to place their needs and interests at the heart of the Work Programme adopted in this Declaration. Recalling the Preamble to the Marrakesh Agreement, we shall continue to make positive efforts designed to ensure that developing countries, and especially the least-developed among them, secure a share in the growth of world trade commensurate with the needs of their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context, enhanced market access, balanced rules, and well targeted, sustainably financ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programmes have important roles to play.
3. We recognize the particular vulnerability of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the special structural difficulties they face in the global economy. We are committed to addressing the marginalization of least-developed countri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to improving their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e recall the commitments made by Ministers at our meetings in Marrakesh, Singapore and Geneva, an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Third UN Conference on Least-Developed Countries in Brussels, to help least-developed countries secure beneficial and meaningful integration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the global economy. We are determined that the WTO will play its part in building effectively on these commitments under the Work Programme we are establishing.
4. We stress our commitment to the WTO as the unique forum for global trade rule-making and liberalization, while also recognizing that regional trade agreement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the liberalization and expansion of trade and in fostering development.
5. We are aware that the challenges Members face in a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cannot be addressed through measures taken in the trade field alone. We shall continue to work with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for greater coherence in global economic policy-making.
6. We strongly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obj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stated in the Preamble to the Marrakesh Agreement. We are convinced that the aims of upholding and safeguarding an open and non-discriminatory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acting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an and must be mutually

supportive. We take note of the efforts by Members to conduct national environmental assessments of trade policies on a voluntary basis. We recognize that under WTO rules no country should be prevented from taking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of the environment at the levels it considers appropriate,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they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and are otherwi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WTO Agreements. We welcome the WTO's continued cooperation with UNEP and other inter-governmenta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We encourage efforts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WTO and releva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organizations, especially in the lead-up to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to be held in Johannesburg, South Africa, in September 2002.

7. We reaffirm the right of Member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to regulate, and to introduce new regulations on, the supply of services.

8. We reaffirm our declaration made at the Singapore Ministerial Conference regarding internationally recognized core labour standards. We take note of work under way i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on the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9. We note with particular satisfaction that this Conference has completed the WTO accession procedures for China and Chinese Taipei. We also welcome the accession as new Members, since our last Session, of Albania, Croatia, Georgia, Jordan, Lithuania, Moldova and Oman, and note the extensive market-access commitments already made by these countries on accession. These accessions will greatly strengthe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s will those of the 28 countries now negotiating their accession. We therefore attach great importance to concluding accession proceedings as quickly as possible. In particular, we are committed to accelerating the accession of least-developed countries.

10. Recognizing the challenges posed by an expanding WTO membership, we confirm our collective responsibility to ensure internal transparency and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all Members. While emphasizing the intergovernmental character of the organization, we are committed to making the WTO's operations more transparent, including through more effective and prompt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to improve dialogue with the public. We shall therefore at the national and multilateral levels continue to promote a better public understanding of the WTO and to communicate the benefits of a liberal, 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11. In view of these considerations, we hereby agree to undertake the broad and balanced Work Programme set out below. This incorporates both an expanded negotiating agenda and other important decisions and activities necessary to address the challenges fac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ORK PROGRAMME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12. We attach the utmost importance to the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raised by Members and are determined to find appropriate solutions to them. In this connection, and having regard to the General Council Decisions of 3 May and 15 December 2000, we further adopt the Decision on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in document WT/MIN(01)/W/10 to address a number of implementation problems faced by Members. We agree that negotiations on outstanding implementation issues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the Work Programme we are establishing, and that agreements reached at an early stage in these negotiations shall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7 below. In this regard, we shall proceed as follows: (a) where we provide

a specific negotiating mandate in this Declaration, the relevant implementation issues shall be addressed under that mandate; (b) the other outstanding implementation issues shall be addressed as a matter of priority by the relevant WTO bodies, which shall report to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established under paragraph 46 below, by the end of 2002 for appropriate action.

AGRICULTURE

13. We recognize the work already undertaken in the negotiations initiated in early 2000 under Article 20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including the large number of negotiating proposals submitted on behalf of a total of 121 Members. We recall the long-term objective referred to in the Agreement to establish a fair and market-oriented trading system through a programme of fundamental reform encompassing strengthened rules and specific commitments on support and protection in order to correct and prevent restrictions and distortions in world agricultural markets. We reconfirm our commitment to this programme. Building on the work carried out to date and without prejudging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we commit ourselves to comprehensive negotiations aimed at: substantial improvements in market access; reductions of, with a view to phasing out,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substantial reductions in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We agree tha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all elements of the negotiations and shall be embodied in the Schedules of concessions and commitments and as appropriate in the rules and disciplines to be negotiated, so as to be operationally effective and to enable developing countries to effectively take account of their development needs, including food security and rural development. We take note of the non-trade concerns reflected in the negotiating proposals submitted by Members and confirm that non-trade concerns will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negotiations as provided for in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14. Modalities for the further commitments, including provisions for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hall be established no later than 31 March 2003. Participants shall submit their comprehensive draft Schedules based on these modalities no later than the date of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The negotiations, including with respect to rules and disciplines and related legal texts, shall be concluded as part and at the date of conclusion of the negotiating agenda as a whole.

SERVICES

15. The negotiations on trade in services shall be conducted with a view to promoting the economic growth of all trading partners and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We recognize the work already undertaken in the negotiations, initiated in January 2000 under Article XIX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nd the large number of proposals submitted by Members on a wide range of sectors and several horizontal issues, as well as on movement of natural persons. We reaffirm the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the Negotiations adopted by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n 28 March 2001 as the basis for continuing the negotiations,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s stipulated in the Preamble, Article IV and Article XIX of that Agreement. Participants shall submit initial requests for specific commitments by 30 June 2002 and initial offers by 31 March 2003.

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

16. We agree to negotiations which shall aim, by modalities to be agreed, to reduce or as appropriate eliminate tariffs, including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ariff peaks, high tariffs, and tariff escalation, as well as non-tariff barriers, in particular on products of export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ies. Product coverage shall be comprehensive and without *a priori* exclusions. The

negotiations shall take fully into account the special needs and interest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y participants, including through less than full reciprocity in reduction commitment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rticle XXVIII *bis* of GATT 1994 and the provisions cited in paragraph 50 below. To this end, the modalities to be agreed will include appropriate studies and capacity-building measures to assist least-developed countries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the negotiation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7. We stress the importance we attach to implement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Agreement) in a manner supportive of public health, by promoting both access to existing medicine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into new medicines and, in this connection, are adopting a separate Declaration.

18. With a view to completing the work started in the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ncil for TRIPS)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23.4, we agree to negotiate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ystem of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nd spirits by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We note that issues related to the extension of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23 to products other than wines and spirits will be addressed in the Council for TRIPS pursuant to paragraph 12 of this Declaration.

19. We instruct the Council for TRIPS, in pursuing its work programme including under the review of Article 27.3(b),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TRIPS Agreement under Article 71.1 and the work foreseen pursuant to paragraph 12 of this Declaration, to examine, *inter ali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and other relevant new developments raised by Members pursuant to Article 71.1. In undertaking this work, the TRIPS Council shall be guided by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set out in Articles 7 and 8 of the TRIPS Agreement and shall take fully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dimension.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INVESTMENT

20. Recognizing the case for a multilateral framework to secure transparent, stable and predictable conditions for long-term cross-border investment, particularly foreign direct investment, that will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rade, and the need for enhanc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in this area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1, we agree that negotiations will take place after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basis of a decision to be taken, by explicit consensus, at that Session on modalities of negotiations.

21. We recognize the need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for enhanced support for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in this area, including policy analysis and development so that they may better evaluate the implications of closer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their development policies and objectives, and human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To this end, we shall work in cooperation with other relevant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including UNCTAD, and through appropriate regional and bilateral channels, to provide strengthened and adequately resourced assistance to respond to these needs.

22. In the period until the Fifth Session, further work in the Working Grou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Investment will focus on the clarification of: scope and definition; transparency; non-discrimination; modalities for pre-establishment commitments based on a GATS-type, positive list approach; development provisions; exceptions and balance-of-payments safeguards; consultation

and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Members. Any framework should reflect in a balanced manner the interests of home and host countries, and take due account of the development policies and objectives of host governments as well as their right to regulate in the public interest. The special development, trade and financial need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s an integral part of any framework, which should enable Members to undertake obligations and commitments commensurate with their individual needs and circumstances. Due regard should be paid to other relevant WTO provisions. Account should be taken, as appropriate, of existing bilateral and regional arrangements on investment.

INTERACTION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23. Recognizing the case for a multilateral framework to enhance the contribution of competition policy to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and the need for enhanc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in this area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4, we agree that negotiations will take place after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basis of a decision to be taken, by explicit consensus, at that Session on modalities of negotiations.

24. We recognize the need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for enhanced support for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in this area, including policy analysis and development so that they may better evaluate the implications of closer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their development policies and objectives, and human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To this end, we shall work in cooperation with other relevant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including UNCTAD, and through appropriate regional and bilateral channels, to provide strengthened and adequately resourced assistance to respond to these needs.

25. In the period until the Fifth Session, further work in the Working Group on the Interaction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will focus on the clarification of: core principles, including transparency, non-discrimination and procedural fairness, and provisions on hardcore cartels; modalities for voluntary cooperation; and support for progressive reinforcement of competition institu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capacity building. Full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y participants and appropriate flexibility provided to address them.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26. Recognizing the case for a multilateral agreement on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and the need for enhanc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in this area, we agree that negotiations will take place after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basis of a decision to be taken, by explicit consensus, at that Session on modalities of negotiations. These negotiations will build on the progress made in the Working Group on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by that time and take into account participants' development priorities, especially those of least-developed country participants. Negotiations shall be limited to the transparency aspects and therefore will not restrict the scope for countries to give preferences to domestic supplies and suppliers. We commit ourselves to ensuring adequate technical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both during the negotiations and after their conclusion.

TRADE FACILITATION

27. Recognizing the case for further expediting the movement,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including goods in transit, and the need for enhanc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in this area, we agree that negotiations will take place after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basis of a decision to be taken, by explicit consensus, at that Session on modalities of negotiations. In the period until the Fifth Session,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shall review and as appropriate, clarify and improve relevant aspects of Articles V, VIII and X of the GATT 1994 and identify the trade facilitation needs and priorities of Members, in particular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We commit ourselves to ensuring adequate technical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in this area.

WTO RULES

28. In the light of experience and of the increasing application of these instruments by Members, we agree to negotiations aimed at clarifying and improving disciplines under the Agreements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and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hile preserving the basic concepts, principles and effectiveness of these Agreements and their instruments and objectiv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participants. In the initial phase of the negotiations, participants will indicate the provisions, including disciplines on trade distorting practices, that they seek to clarify and improve in the subsequent phase. In the context of these negotiations, participants shall also aim to clarify and improve WTO disciplines on fisheries subsidies,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this sector to developing countries. We note that fisheries subsidies are also referred to in paragraph 31.

29. We also agree to negotiations aimed at clarifying and improving disciplines and procedures under the existing WTO provisions applying to regional trade agreements. The negotiation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30. We agree to negotiations on improvements and clarificat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The negotiations should be based on the work done thus far as well as any additional proposals by Members, and aim to agree on improvements and clarifications not later than May 2003, at which time we will take steps to ensure that the results enter into force as soon as possible thereafter.

TRADE AND ENVIRONMENT

31.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mutual supportiveness of trade and environment, we agree to negotiations, without prejudging their outcome, on:

- (i)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WTO rules and specific trade obligations set out i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 The negotiations shall be limited in scope to the applicability of such existing WTO rules as among parties to the MEA in question. The negotiations shall not prejudice the WTO rights of any Member that is not a party to the MEA in question;
- (ii) procedures for regular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MEA Secretariats and the relevant WTO committees, and the criteria for the granting of observer status;
- (iii) the reduction or, as appropriate, elimin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to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We note that fisheries subsidies form part of the negotiations provided for in paragraph 28.

32. We instruct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in pursuing work on all items on its agenda within its current terms of reference, to give particular attention to:

- (i) the effect of environmental measures on market access, especially in relation to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the least-developed among them, and those situations in which the elimination or reduction of trade restrictions and distortions would benefit trade,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ii)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 (iii) labelling requirements for environmental purposes.

Work on these issues should include the identification of any need to clarify relevant WTO rules. The Committee shall report to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and make recommendations, where appropriate, with respect to future action, including the desirability of negotiations. The outcome of this work as well as the negotiations carried out under paragraph 31(i) and (ii) shall be compatible with the open and non-discriminatory nature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hall not add to or diminis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under existing WTO agreements, in particular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nor alter the balance of these rights and obligations, and will take into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33.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in the field of trade and environment to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the least-developed among them. We also encourage that expertise and experience be shared with Members wishing to perform environmental reviews at the national level. A report shall be prepared on these activities for the Fifth Session.

ELECTRONIC COMMERCE

34. We take note of the work which has been done in the General Council and other relevant bodies since the Ministerial Declaration of 20 May 1998 and agree to continue th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The work to date demonstrates that electronic commerce creates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rade for Members at all stages of development, and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reating and maintaining an environment which is favourable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We instruct the General Council to consider the most appropriat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handling the Work Programme, and to report on further progress to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We declare that Members will maintain their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until the Fifth Session.

SMALL ECONOMIES

35. We agree to a work programme, under the auspices of the General Council, to examine issues relating to the trade of small economies. The objective of this work is to frame responses to the trade-related issues identified for the fuller integration of small, vulnerable economies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not to create a sub-category of WTO Members. The General Council shall review the work programme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action to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TRADE, DEBT AND FINANCE

36. We agree to an examination, in a Working Group under the auspices of the General Counci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debt and finance, and of any possible recommendations on steps that might be taken within the mandate and competence of the WTO to enhance the capacity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o contribute to a durable solution to the problem of external indebtednes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to strengthen the coherence of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ial policies, with a view to safeguard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from the effects of financial and monetary instability. The General Council shall report to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progress in the examination.

TRADE AND TRANSFER OF TECHNOLOGY

37. We agree to an examination, in a Working Group under the auspices of the General Counci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transfer of technology, and of any possible recommendations on steps that might be taken within the mandate of the WTO to increase flows of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 The General Council shall report to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progress in the examination.

TECHNICAL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38. We confirm that technical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are core elements of the development dimension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we welcome and endorse the New Strategy for WTO Technical Cooperation for Capacity Building, Growth and Integration. We instruct the Secretariat, in coordination with other relevant agencies, to support domestic efforts for mainstreaming trade into national plan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strategies for poverty reduction. The delivery of WTO technical assistance shall be designed to assist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low-income countries in transition to adjust to WTO rules and disciplines, implement obligations and exercise the rights of membership, including drawing on the benefits of an open, 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Priority shall also be accorded to small, vulnerable, and transition economies, as well as to Members and Observers without representation in Geneva. We reaffirm our support for the valuable work of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 which should be enhanced.

39. We underscore the urgent necessity for the effective coordinated delivery of technical assistance with bilateral donors, in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and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intergovernmental institutions, within a coherent policy framework and timetable. In the coordinated delivery of technical assistance, we instruct the Director-General to consult with the relevant agencies, bilateral donors and beneficiaries, to identify ways of enhancing and rationalizing the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the Joint Integrated Technical Assistance Programme (JITAP).

40. We agree that there is a need for technical assistance to benefit from secure and predictable funding. We therefore instruct the Committee on Budget, Finance and Administration to develop a plan for adoption by the General Council in December 2001 that will ensure long-term funding for WTO technical assistance at an overall level no lower than that of the current year and commensurate with the activities outlined above.

41. We have established firm commitments on technical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in various paragraphs in this Ministerial Declaration. We reaffirm these specific commitments contained in paragraphs 16, 22, 25-27, 33, 38-40, 42 and 43, and also reaffirm the understanding in paragraph 2 on the important role of sustainably financ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programmes.

We instruct the Director-General to report to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with an interim report to the General Council in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and adequacy of these commitments in the identified paragraphs.

LEAST-DEVELOPED COUNTRIES

42. We acknowledge the seriousness of the concerns expressed by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LDCs) in the Zanzibar Declaration adopted by their Ministers in July 2001. We recognize that the integration of the LDCs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requires meaningful market access, support for the diversification of their production and export base, and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We agree that the meaningful integration of LDCs into the trading system and the global economy will involve efforts by all WTO Members. We commit ourselves to the objective of duty-free, quota-free market access for products originating from LDCs. In this regard, we welcome the significant market access improvements by WTO Members in advance of the Third UN Conference on LDCs (LDC-III), in Brussels, May 2001. We further commit ourselves to consider additional measures for progressive improvements in market access for LDCs. Accession of LDCs remains a priority for the Membership. We agree to work to facilitate and accelerate negotiations with acceding LDCs. We instruct the Secretariat to reflect the priority we attach to LDCs' accessions in the annual plans for technical assistance. We reaffirm the commitments we undertook at LDC-III, and agree that the WTO should take into account, in designing its work programme for LDCs, the trade-related elements of the Brussels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consistent with the WTO's mandate, adopted at LDC-III. We instruct the Sub-Committee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to design such a work programme and to report on the agreed work programme to the General Council at its first meeting in 2002.

43. We endorse the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Developed Countries (IF) as a viable model for LDCs' trade development. We urge development partners to significantly increase contributions to the IF Trust Fund and WTO extra-budgetary trust funds in favour of LDCs. We urge the core agencies, in coordination with development partners, to explore the enhancement of the IF with a view to addressing the supply-side constraints of LDCs and the extension of the model to all LDCs, following the review of the IF and the appraisal of the ongoing Pilot Scheme in selected LDCs. We request the Director-General, following coordination with heads of the other agencies, to provide an interim report to the General Council in December 2002 and a full report to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all issues affecting LDCs.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44. We reaffirm that provisions for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are an integral part of the WTO Agreements. We note the concerns expressed regarding their operation in addressing specific constraints faced by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least-developed countries. In that connection, we also note that some Members have proposed a Framework Agreement 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WT/GC/W/442). We therefore agree that all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provisions shall be reviewed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them and making them more precise, effective and operational. In this connection, we endorse the work programme 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et out in the Decision on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WORK PROGRAMME

45. The negotiations to be pursued under the terms of this Declaration shall be concluded not later than 1 January 2005.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will take stock of progress in the negotiations, provide any necessary political guidance, and take decisions as necessary. When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s in all areas have been established, a Special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will be held to take decisions regarding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ose results.

46. The overall conduct of the negotiations shall be supervised by a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under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Council.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shall hold its first meeting not later than 31 January 2002. It shall establish appropriate negotiating mechanisms as required and supervise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s.

47. With the exception of the improvements and clarificat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the conduct, conclusion and entry into force of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shall be treated as parts of a single undertaking. However, agreements reached at an early stage may be implemented on a provisional or a definitive basis. Early agreement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assessing the overall balance of the negotiations.

48. Negotiations shall be open to:

- (i) all Members of the WTO; and
- (ii) States and separate customs territorie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accession and those that inform Members, at a regular meeting of the General Council, of their intention to negotiate the terms of their membership and for whom an accession working party is established.

Decisions on the outcomes of the negotiations shall be taken only by WTO Members.

49. The negotiations shall be conducted in a transparent manner among participants, in order to facilitate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all. They shall be conducted with a view to ensuring benefits to all participants and to achieving an overall balance in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50. The negotiations and the other aspects of the Work Programme shall take fully into account the principle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embodied in: Part IV of the GATT 1994; the Decision of 28 November 1979 on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the Uruguay Round Decision on Measures in Favour of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all other relevant WTO provisions.

51. The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and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shall, within their respective mandates, each act as a forum to identify and debate developmental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negotiations, in order to help achieve the objective of ha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priately reflected.

52. Those elements of the Work Programme which do not involve negotiations are also accorded a high priority. They shall be pursued under the overall supervision of the General Council, which shall report on progress to the Fif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 도하 각료선언문 요약 >

I. 서 문

- 현재 세계적인 경제침체 상태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은 WTO가 추구하는 원칙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보호주의 조치를 억제하며 각국 무역정책의 개혁 및 자유화를 계속 추진토록 함.
- 국제무역이 빈곤퇴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전제 하에 다자통상체제로부터 생기는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선언문에서 채택되는 모든 작업 계획이 개도국과 최빈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함.
- 무역자유화에 있어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도 인정하지만 세계무역규범 형성 및 자유화를 위한 유일한 포럼으로서의 WTO의 중요성을 확인함.
-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고 세계경제정책 형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브레튼 우즈 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조를 계속함.
-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다자통상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일 수 있고 또 그 래야 함을 확신함. 각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목적의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며, 그러한 조치가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함.
-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싱가포르 각료 선언문 내용을 재확인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작업에 대해 주목함.

-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작업이 금번 각료회의에서 마무리됨을 환영하고, 현재 진행중인 28개국의 가입작업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끝나기를 희망함.
- 모든 회원국의 효과적인 활동 참여 및 WTO의 내부적 투명성 증진을 보장할 공동의 책임을 확인하고, 정보 교류 및 대화의 장 제공을 통해 WTO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함.
- 이러한 고려 하에 아래의 넓고 균형적인(broad and balaced) 작업계획을 추진함.

II. 이행 문제

- 일부 이행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금번 각료회의에서 결정을 채택
- 나머지 이행문제는 작업계획에 따라 처리함.
 - 협상대상 분야의 이행문제는 협상에서 처리
 - 그 외의 분야의 이행문제는 관련 산하기구에서 검토, 그 결과를 2002년말까지 무역협상위원회에 보고

Ⅲ. 향후 작업 계획

1. 농 업

-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의 수립이 장기 목표임을 확인
-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3대 협상분야별 협상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
 -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
 -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목표로 한 감축
 -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substantial reduction)
- 개도국 우대는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양허표 작성 및 규범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을 합의
-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이 협상의 고려사항임을 확인
- 협상방식(modalities) 수립 시한은 2003.3.31., 양허안 제출시한은 5차 각료회의 이전으로 함
 - 단, 협상종결은 전체 뉴라운드 협상 종결과 합치

2. 서비스

-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협상의 진전에 대한 만족을 표명
- GATS 상의 서문, 4조, 16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함에 있어서 2001.3.28 채택된 서비스협상 가이드라인이 그 기초가 됨을 재확인
- 양허안 요청은 2002.6.30., 양허안은 2003.3.31 까지 제출

3. 비농산품을 위한 시장접근

- 침두관세, 고관세 및 경사관세 문제를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 개시
- 협상대상 상품 범위는 포괄적이어야 하고 선택적 제외가 있어서는 안됨.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이익 고려
- 이를 위하여 LDC들이 협상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할 세부원칙에는 필요한 연구(appropriate studies)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capacity-building measures)를 포함토록 함.

4. 지적재산권

-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표시에 대한 통보 및 등록을 위한 다자 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 마무리
- 지리적표시 보호를 여타 상품에도 확대하는 문제는 TRIPS 이사회에서 검토
- TRIPS 협정과 CBD(생물다양성협약) 간의 관계, 전통지식보호, 비위 반제소, TRIPS 협정이 신기술발전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TRIPS 이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에 동의

5. 무역과 투자

- 국경간 장기 투자 특히 무역확대에 기여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다자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case)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에 대한 개도국의 필요를 인정하며, 이를 위해 UNCTAD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 그리고 지역 또는 양자 채널을 통해 지원을 제공
- 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종 요소의 명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 서비스협정의 접근방식에 기반한 범위 및 정의, 투명성, 비차별, 설립전 약속에 대한 조항 및 국가간 분쟁해결조항 등
 - 상기 다자규범은 투자국 및 유치국간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정부의 규제책임 및 경제개발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6. 무역과 경쟁정책

- 국제무역과 개발에 기여할 경쟁정책에 대한 다자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case)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에 대한 개도국의 필요를 인정하며, 이를 위해 UNCTAD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 그리고 지역 또는 양자 채널을 통해 지원을 제공
- 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종 요소의 명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 투명성·비차별·절차의 공정성·중핵카르텔 규정을 포함한 핵심 원칙, 자발적 협력을 위한 방식(modalities), 능력배양을 통한 개도국 경쟁기관의 점진적 강화 등

7. 정부조달투명성

- 정부조달 투명성에 관한 다자협정 필요성 및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제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 이 협상은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서의 진전사항에 기초하고, 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고려
- 협상은 투명성 분야에만 제한되어야 하며, 각국이 국내공급품 및 공급자를 선호할 여지를 제한하지 말아야 함.

8. 무역원활화

- 상품의 이동·통관을 촉진시킬 필요성 및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제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 5차 각료회의시까지 상품이사회는 GATT 94 협정 제5,8,10조의 유관 분야를 검토, 명확화,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회원국들의 무역원활화 수요 및 우선순위를 파악

9. WTO 규범

-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의 협상 개시
 - 단,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및 그 수단, 목적은 유지
 -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역왜곡적 관행을 포함하여 각국이 명확화 또는 개선을 희망하는 조항을 제시
- 동 협상의 맥락에서 일환으로 수산 보조금 관련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것도 목표로 함.
- 지역무역협정에 적용될 WTO 조항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의 협상 개시

10. 분쟁해결양해 개정

- 분쟁해결양해 개정에 대한 협상 개시
- 협상을 통해 2003년 5월 이전에 균형된 개정안을 도출해야 함.

11. 무역과 환경

-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아래 분야에 대한 협상을 개시
 - WTO 기존 규범과 MEA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
 - MEA 사무국들과 WTO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및 옵저버 자격 절차
 -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 수산 보조금이 규범 분야 협상의 일부임에 유의
- 무역환경위원회(CTE)는 현재 소관 범위내의 모든 의제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되, 특히 다음에 주목
 -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무역규제 및 왜곡을 철폐 또는 삭감하여 무역·환경·개발에 도움이 되는 상황
 - TRIPS협정의 관련 규정
 - 라벨링 환경 목적의 라벨링 요건
- 상기 작업은 관련 WTO 규범의 명확화 필요성의 파악을 포함하고, CTE는 제5차 각료회의에 보고를 하며, 협상 필요성을 포함한 장래 작업에 관한 권고를 제출
- 동 작업 및 para. 31의 협상 결과는 다자무역체제의 비차별성과 조화되어야 하며, 기존 WTO 협정상 회원국의 권리 의무를 추가 또는 감소하지 말아야 하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변경하지 않으며,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의 필요를 감안

12. 전자상거래

- 제네바 각료선언이후 일반이사회 및 다른 기구에서 행해진 작업에 주목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작업계획을 계속함.
- 일반이사회는 작업계획을 다룰 가장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5차 각료회의에 보고서 제출
- 5차 각료회의까지 전자적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관행 연장

13. 소규모 경제

- 일반이사회 감독하에 소규모 경제국(small economies)을 다자무역체제에 더 효과적으로 통합할 문제를 검토하는 작업 계획 수립

14. 무역, 부채, 금융

- 일반이사회에서 무역, 부채, 금융간의 관계를 검토
 - 이 문제를 검토할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5차 각료회의에 보고

15. 무역과 기술이전

- 일반이사회에서 무역과 기술이전간의 관계 및 개도국에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할 가능한 권고 방안을 검토하고, 이 문제를 다룰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5차 각료회의에 보고

16. 기술협력 및 능력 배양

- 기술협력대상국이 WTO 규범을 보다 잘 이해하고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계획이 고안되어야 함.
 - 또한 제네바에 대표부가 없는 국가를 우선시하여 기술지원이 행해져야 하며, 예산행정위원회가 보다 장기적인 기금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올해 12월 일반이사회가 그 계획을 채택하도록 함.

17. 최빈개도국

- 최빈개도국의 무역체제 통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최빈개도국을 위한 작업계획 고안시 올해 5월 제3차 UN 최빈개도국 회의에서 채택된 브뤼셀 선언을 고려해야 함.
 - 또한 최빈개도국을 위한 통합계획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기반한 신탁기금의 확대를 위해 노력함.
- LDC 산품에 대한 무관세, 무쿼타 목표에 대한 약속을 확인

18. S&D

- S&D 조항을 보다 정확·유효·운영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관련 조항을 검토
- 이행 관련 결정문 내용중 S&D 작업계획 부분을 승인

19. 작업계획의 조직 및 관리

- 협상일정
 - 협상종료시점 : 2005.1.1
 - 제5차 각료회의는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결정을 채택
 - 모든 분야의 협상종료시 특별 각료회의에서 동 결과를 채택
- 협상감독기구로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설치
 - 1차회의 개최: 2002.1.31 이전
- 협상방식 : single undertaking (DSU 개정은 예외)
 - *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처리
 - 그러나 조기 합의사항은 조기 시행 가능
- 협상 참가국 : WTO 회원국 및 가입협상 진행국
- 무역개발위원회와 무역환경위원회는 협상의 개발측면과 환경측면을 검토.

기관	성명	전화 / e-mail	소관 분야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기획단	단장 김창규	2110-5294 ckkim@mocie.go.kr	WTO DDA협상 총괄
	박대규 사무관	2110-5291 parker@mocie.go.kr	서비스, 시장접근, 환경 등
	심진수 사무관	2110-5281 yuany@mocie.go.kr	규범, 분쟁, 섬유 등
	엄혜선 주무관	2110-5291 solaris@mocie.go.kr	투자,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신혜진 연구관	2110-5281 sian@kotra.or.kr	무역원활화, 경쟁정책 등
대한상의 경제정책팀	손영기 과장	316-3445 yksohn@kcci.or.kr	(지방설명회 준비)
무역협회 국제통상팀	조학희 과장	6000-5194 hockey@kotis.net	반덤핑
KOTRA 해외조사팀	민경선 팀장	3460-7310 ksmin@kotra.or.kr	투자 (설명자료 인쇄)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	오영석 박사	3299-3043 ysoho@kiet.re.kr	시장접근